

봄이야기

2017. 통권 208호

E D U C A T I O N G Y E O N G N A M



- ✓ 특별대담 박종훈 교육감께 듣는다
- ✓ 특 집 I 2017 경남교육의 꿈
- ✓ 특 집 II 소통과 공감의 기술

홀씨의 꿈

안화수

가벼워서 날리는 것이
푸른 꿈 있어 스스로 날개 만든다

정든 보금자리 마다하고
고행의 길 나서
별 드는 따뜻한 언덕에
풀 한 포기 살지 않는 메마른 땅에
조심조심 내려앉아 새 생명 잉태하는
민들레 홀씨



꽃대 끝에 구김 없이 매달린 아이들
이제 저 넓은 세상으로 떠나려 한다

공장에서 땀 흘리기도 하고
어렵게 배워서 남 주기도 하고
더러는 빌딩 속의 주인공이 되기도 하지만
두 발 반듯하게 설 수 있으면
어딘들 어찌랴
다 좋다
뿌리 내린 자리에서
탐스러운 꽃 한 송이 피우기 위해
추운 날씨에도 봄날을 꿈꾼다



마산공업고등학교 교사
시인·종합문예지《시애》편집장
계간《경남문학》편집주간

Contents



002 여는시

흙씨의 꿈 / 안화수

008 권두언

공고한 공교육 철학으로 / 황선준

012 특별대담

박종훈 교육감께 듣는다 / 오인태



020 경남교육의 창

내 안의 사람다움이 더불어 살아가는 힘이다 / 김상권

026 초대논단

학생의 성장을 돕는 과정 중심 평가 / 이혜심



030 특집 I 2017 경남교육의 꿈

더 나은 실패를 위한 한 발을 내딛으며 / 김정애

아름다운 도전 / 김년수

제2청사 개청과 경남교육의 새로운 도약 / 강정희

046 특집 II 소통과 공감의 기술

아이를 있는 그대로... / 현정희

평화로운 학급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생활교육 / 노용승

지금 기분이 어때? / 고정택

064 생생교육

KOSETA 발표를 마치며 / 전상윤
60여 년 만에 품은 중학교 졸업장 / 강재영

076 우리 학교는

사랑의 씨앗을 뿌려 행복의 열매를 맺다 / 윤양수
교육공동체와 소통하다 / 박진우
별을 쏘다, 악양들빛 하늘에 / 주옥경

096 우리 동아리 최고

함께 걸어 좋은 길 / 최희정
울하고등학교 YBS / 강형훈

110 교직실무

학교자율감사 / 노영민

116 여유와 멋

3월은 봄도 아니다 / 박근생
잘 놀아야 잘 크다 / 박종국
삼 / 최용규
차 한잔의 여유와 멋 / 조은희

125 아이좋아 갤러리

봄의 향연 / 황미주

* 표지사진 : 송재윤



「교육경남」은 열린편집을 지향합니다.



「교육경남」은 현장교육 개선과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자료 및 정보를 제공합니다. 교육가족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을 기대하며, 「교육경남」여름호에 게재할 원고를 모집합니다.

✓ 교육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학교의 특색 있는 행사 사진과 내용, 기관, 학교, 교사의 교육활동 우수
사례, 「교육경남」에 대한 제안/소감, 문예작품 등

✓ 원고 보내실 곳

- 담당자 메일 : ohit12@Korea.kr

51141 경남 창원시 의창구 사림로 111길 20 / Tel (055)269-0712

* 원고 끝에 소속, 성명, 전화번호, 약력, 이메일을 기재바랍니다.

- 투고하신 원고는 반환하지 않으며, 채택된 원고나 제안/소감에 대하여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교육경남」은 경남교육연구정보원 홈페이지에서 E-book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교육경남편집위원회

008 권두언

공고한 공교육 철학으로

황선준 | 경남교육연구정보원장

012 특별대담

박종훈 교육감께 듣는다

오인태 | 교육경남 편집주간

020 경남교육의 창

내 안의 사람다움이 더불어
살아가는 힘이다

김상권 |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국장

026 초대논단

학생의 성장을 돕는 과정 중심 평가

이혜심 | 교육부 연구사

2017, Spring story
Education
Gyeongnam

공고한 공교육 철학으로



황선준
경남교육연구정보원장

오랜 정치적 혼돈은 지난 3월 대통령 탄핵 인용으로 일단락되었습니다. 곧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는 이 뼈아픈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정권을 창출해내야 합니다. 그래서 해방 이후 아직도 청산 못한 친일 세력과 그와 함께 이 땅에 뿌리내린 독재·반통일·부패·무능세력을 청산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가장 고질적 병폐인 양극화를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정권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육제도 새로운 각오를 다져야 할 때입니다. 더욱이 이런 혼돈의 시대일수록 좀 더 장기적 안목에서 공고한 공교육 철학으로 우리 아이들을 길러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공교육 철학 문제를 이 자리에서 논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교육은 무엇보다도 모두를 위한 교육이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 중에는 공부에 대한 동기 부여가 잘 되어 있거나 그렇지 못한 아이들,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좋거나 그렇지 않은 아이들,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 선천적·후천적 장애를 지닌 아이들 등 아이들의 배경과 조건은 천차만별입니다. 그런 모든 아이들이 양질의 교육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고 그것이 바로 공교육입니다. 많은 연구들은 다양한 배경의 아이들이 한 학교, 한 학급에서 만나 서로 배우고 가르치고 이해할 때 학업성취도뿐만 아니라 사회성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나아가 배경이 다른 아이들이 한 학교에서 서로 부대끼며 공부하고 이

해하며 성장하여 나중에 시민이 될 때 그 사회는 계층 간의 사회적 갈등이 적은 사회가 된다고 했습니다. 즉 교육은 단지 축적된 지식을 다음 세대에 전승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사회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바람직한 미래사회를 열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공교육은 궁극적으로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일입니다

루소는 독립적이고 쫓대 강한 자유인을 길러내는 것이 바로 교육이라고 역설했습니다. 프랑스 혁명 이후의 자유, 평등, 정의, 연대성과 같은 시민사회의 주요 이념들이 민주주의 체제 속에서 꽃피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영국의 EU 탈퇴 결정,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등장, 유럽에서의 극우 국수주의의 득세 등으로 세계가 보호무역주의, 자국중심주의(nationalism), 인종차별주의로 회귀하는 작금의 상황에서 민주주의 교육은 더욱 절실합니다. 오직 민주주의만이 이런 부정적인 이념들과 세력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교육은 더욱 투철한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교육에서 정치교육을 금지할 것이 아니라 정치의 실상을 낱알이 밝혀줘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학교는 아이들에게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교육시키고, 민주주의를 체험하게 하고, 학교 관리자는 학교를 민주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민주주의의 가장 귀중한 첫걸음입니다. 민주주의는 결코 민주주의자 없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셋째, 공교육은 사고하는 아이, 특히 비판적 사고를 겸비한 아이를 길러내야 합니다

우리 교육은 사실 위주의 많은 지식을 전수하는 데 세계 최강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무엇이 문제인지를 고민하고 설정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전자에 치중하다보니 후자에 약한 것입니다. 소위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시대의 교육은 단연코 전자보다는 후자에 더 초점을 뒀야 합니다. 아이들이 '왜'라는 질문으로 모든 것에 의문을 제기할 때 비판적 사고가 생기고 창의력이 발현됩니다. 비판적 사고 없이는 창의력도 없습니다.

창의력은 결코 일부 똑똑한 아이만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의 형태나 질에 따라 창의력을 심어주는 데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의문을 제기하는 습관을 길러주고 그런 의문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다른 아이들과 토론하며 고민할 때 비로소 창의력은 생기고 길러집니다. 우리의 수업방식을 아이들이 참여하고 주인이 되는 토론·토의식, 협력중심, 배움중심 수업으로 전환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이런 수업방식에 적합한 학력평가방식으로 전환해야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혼돈의 시대일수록 장기적 안목에서
공고한 공교육 철학으로
우리 아이들을 길러내야

넷째, 국가는 가정을 보완해야 합니다.

아이들은 부모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교육환경 및 사회·경제적 배경이 좋은 아이들이 좋은 교육 경력의 길을 걷는 것은 너무나 당연할 것입니다. 공교육은 그런 좋은 교육환경에서 자라지 못하는 아이들에게도 세심한 배려를 통해 좋은 교육 경력의 길을 걷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노동자의 아이가 판·검사가 되고 농민의 딸이 의사가 되는 교육을 해야 합니다. 우리 교육자는 그런 교육을 하는 국가의 오른팔과 왼팔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교육철학으로 어떻게 아이들을 길러내는가에 따라 우리 사회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또 공교육은 경쟁보다는 협력, 수월성 교육보다는 보편교육에 더욱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래서 걸러내는 교육이 아니라 길러내는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국가는 공교육을 통해서 사회적 평등과 정의를 이룰 수 있습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들었던 탄핵 정국은 이제 인용으로 귀결되었습니다. 일시적 혼돈은 계속되겠지만 새 정권으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것은 이제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위대한 변신에 우리 교육도 공고한 철학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육이 단지 가진 자들의 기득권 유지 수단만으로 작동되어서는 결코 사회정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교육자 한 분 한 분의 뚜렷한 공교육 철학으로 다 함께 새 시대를 열어가기를 희망합니다. **교육경남**

"교육 본질 추구의 핵심은 수업 혁신"



대담·정리 / 오인태 교육경남 편집주간·시인

박종훈 교육감을 만난 건 공교롭게도 지난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시킨 날이었다. 현재는 이날 탄핵심판에서 재적 재판관 8인 전원일치로 국회가 탄핵 소추한 박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오후 3시경, 도교육청 제2청사 1층에 있는 북카페에서 박종훈 경상남도 교육감을 만났다. 자리에 앉자마자 예정에 없던 질문을 던졌다.

오늘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파면되었습니다. 논평이랄까요, 먼저 여기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고 시작하지요.

한마디로 위대한 국민승리라 말하고 싶습니다. 민주국가에서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평범한 상식을 확인한, 거의 6개월 동안 스무 차례 가까이 촛불집회를 이어왔지만 단 한 번의 폭력사태도 없었던, 성숙한 민주시민혁명의 자랑스러운 쾌거이자 결실입니다. 법과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한 거지요. 우리 교육계도 민주시민교육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고 국민들에게 더욱 신뢰받을 수 있도록 성찰과 다짐의 계기로 삼아야겠습니다. 우선 저부터 이런 각오를 다져 봅니다.





취임 첫말씀이
선생님을 아이들
곁으로 돌려주자였던 것
으로 기억합니다

학년 초라 일선 학교도 한창 바쁘겠지만 교육감님께서도 이즈음이 가장 바쁘실 때일 것 같습니다. 학년 초 일정을 어떻게 짜서 보내고 계십니까?

학교는 지금 입학식은 물론이고, 학생이나 학부모님 상담, 학급 환경정리, 교육과정 설명회, 수업 및 평가계획 수립 등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쁠 것입니다. 이런 학교에 대고 이런 저런 지시를 하고 훈수를 두는 일은 부담만 더 주는 일이겠지요. 교육청에서도 3월 한 달 동안 공문발송을 최대한 자제하고 연수와 회의 소집을 하지 않음으로써 선생님들이 교실수업에 전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도 3월 한 달은 교육지원청과 학교방문을 하지 않고 교육감 공약 사업을 차분히 점검하며 본청 안의 업무를 챙기는 데 집중하려 합니다.

2014년 6월에 민선교육감에 당선돼 햇수로는 3년을 보내시고 임기에서 이제 열두 달이 온전하게 남은 해는 올해가 마지막인데요. 그동안 직무를 수행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일을 꼽으신다면?

가장 어려웠던 일은 학교급식 문제로, 2015년도 지자체가 학교무상급식비 지원 중단을 선언하면서 전국적인 문제로 부상했을 때 고민이 참 깊었습니다. 연일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이 도시락을 싸 오는가 하면 운동장 한쪽에 숯단지가 내걸리는 것을 보며 이러다가 아이들 밥을 굶기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지요.

무상급식 논란의 진원지로서 우리 경남이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었지요. 그래도 미흡한 수준이지만 무상급식이 재개되긴 했는데요.

2014년 수준으로 지원이 재개되었지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고요. 학교무상급식비는 누리과정과 함께

재정여건이 열악한 우리 교육청에 여전히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경남의 학교급식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여 더욱 질 높은 급식으로 만족도를 높여가고 있고, 최근에는 주변 100리 이내에서 생산된 식재료로 마련되는 백리식단을 통해 건강하고 맛있는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물론 보람 있는 일도 많았을 테지요?

가장 큰 보람을 느끼는 일은 선생님들의 자발적인 수업 혁신 노력을 부추겼고 그 성과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는 건데요. 운동 경기에서 감독이 가장 기분 좋을 때는 자신의 경기 전략이 맞아 떨어졌을 때라고 하잖아요.

취임 첫 말씀이 선생님을 아이들 곁으로 돌려주자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학교로 출근하는 선생님이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아닌, 그날 처리할 공문과 행정업무를 걱정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행정업무를 줄여 수업과 평가 등 선생님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거지요. 그 결과 교실수업을 바꾸고자 하는 선생님들의 노력도 들불처럼 번져 나갔고요. 교육청에서도 선생님들의 연수 기회를 늘리고, 평가 방법을 개선하며 수학문화관 유치와 수학체험센터 확대를 통해 수업혁신 노력을 뒷받침한 것도 수업혁신에 보탬이 되었다고 봅니다.



독서는
순기능은 크고
역기능은 찾기 어려운
가장 효율적인
교육활동입니다

교육감이 되기 전과 되고난 후, 특히 교육에 대해 달라진 현실인식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이상과 현실의 차이라고 봐야겠지요. 교육감이 되기 전에는 꼭 바꾸겠다고 생각했던 일도 교육감이 되고 보니 현실적으로 부딪치는 난관들이 있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고, 특히 변화를 머뭇거리는 공무원 특유의 관료주의 문화, 경남도와의 갈등 문제가 간단하지 않았어요. 선생님들의 행정업무를 줄이기 위해 공문을 줄이거나 공문서 없는 학교를 운영해 보자고 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교육본질을 추구함으로써 교실문화를 바꾸고 학교를 변화시켜 경남교육을 새롭게 바꾸고자 하는 노력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일이지요.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는 이 7층 건물을 매입하여 '소통관'이라 이름붙인 제2청사를 여셨는데, 특별한 이유나 기대가 있으신가요?

그동안 본청이 협소하여 회의장소를 구하느라 애를 먹고 직속기관과 인근 학교에 장소를 빌리느라 귀찮게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2청사 개청으로 회의실도 넉넉히 확보하고 사무실 환경도 고쳐감으로써 업무환경을 개선하고자 했던 건데요. 1층은 도민 누구나 차를 마시며 책을 볼 수 있는 북카페로 꾸미고, 한쪽에는 전시공간을 마련해 만남을 기다리는 시간이 지루하지 않게 배려했습니다.

제2청사 개청과 함께 조직개편도 단행하셨지요?

3월 1일자로 조직을 개편했습니다. 종전에 체육교육, 학교폭력, 인성교육의 전반을 담당했던 교육국 내 체육인성과가 학생중심의 인성교육과 학교폭력 문제를 총괄하기가 어렵다는 자체평가에 따라 학생생활과를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안전총괄담당과 재정과를 독립하여 재편했구요. 조직 개편은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학생중심교육 지원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는 생각으



로 정기적인 조직점검을 통해 학생과 교직원 모두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해 갈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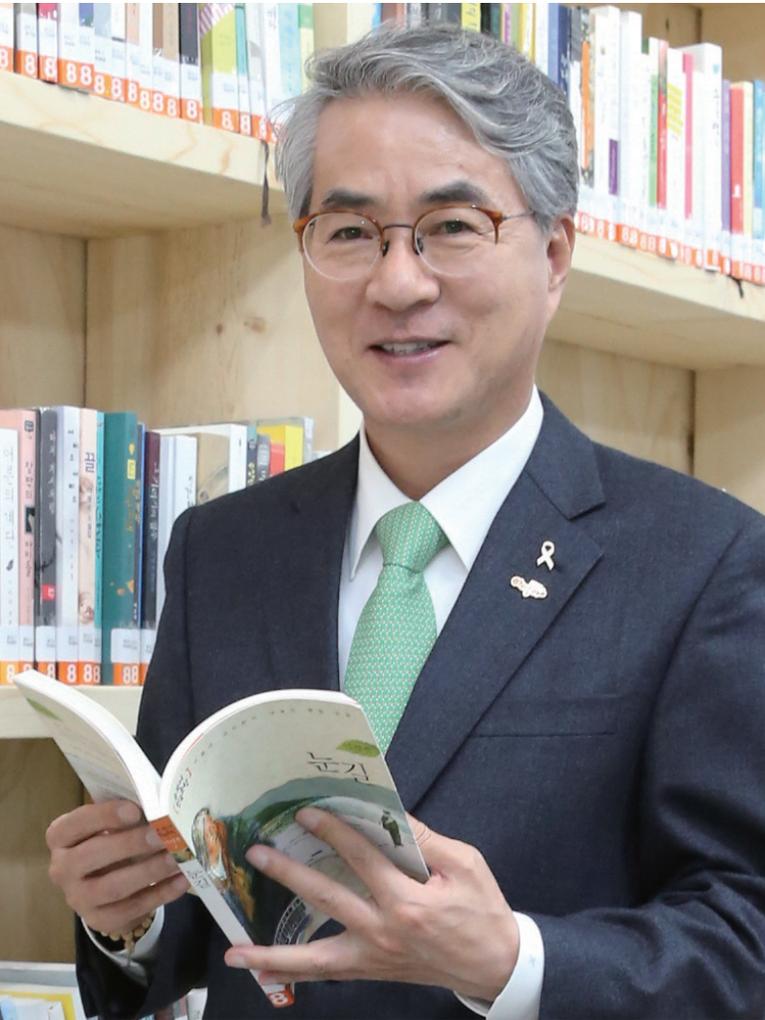
앞으로 특별히 챙겨봐야겠다고 생각하시는 정책이나 사업이 있다면?

학생안전 강화, 다양성교육, 생태환경교육, 수업혁신 등 챙길 것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강조할 정책은 수업혁신과 행복학교 운영입니다. 저는 수업혁신과 행복학교 운영이 경남교육의 변화를 이끄는 양수레바퀴라 생각하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수업혁신은 교육 본질 추구의 핵심입니다. 교사 중심, 가르침 중심의 수업을 학생 중심, 배움 중심 수업으로 바꾸고 대화와 토론이 있는 수업을 통해 잠자는 아이들을 깨워 즐겁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요. 수업혁신은 자유학기제 운영, 2015개정 교육과정 적용은 물론이고, 학생부종합전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한편, 행복학교 운영은 경남교육을 새롭게 하는 변화의 아이콘이라 할 수 있는데요. 행복학교는 민주적 학교문화를 토대로 집단지성이 발휘되며 교육과정 중심으로 학교가 운영됨으로써 소통과 배려의 공동체로 거듭나는 미래형 학교라 할 수 있지요. 특히 올해는 지역과 함께하는 행복교육지구를 운영하여 학교와 지역사회가 소통하고 협력하며 성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Education



교육위원 시절부터 독서교육에 심혈을 기울이셨는데 교육감에 당선되시고 독서교육과 관련하여 특별히 추진하고 있는 일들이 있으신가요?

교육위원 때부터 도서관 현대화 사업을 추진했고, 교육감 취임 초기부터 행복한 책 읽기 문화 조성을 역점 과제로 삼았는데요. ‘책 읽어 주세요’ 운동과 ‘한 책 읽고 토론하기’를 전개하여 책을 가까이 하고 독서토론을 정착시키고자 노력했습니다. 올해도 선생님, 학생, 학부모 독서동아리 500여 개 팀과 인문학 동아리 운영 학교를 40개 정도 지정하여 독서문화의 확산을 도우려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우리교육청 소속 24개 공공도서관 정보시스템 통합 구축이 완료되어 경남 어디서나 상호대차, 택배서비스, 타관 대출반납 등 통합 도

서 서비스가 가능해졌고, 전국 최초로 학교도서관과도 자료를 공유할 수 있게 되기도 했어요.

독서교육감으로 불리기를 바란다라고 공공연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독서에 대한 특별한 철학이나 문제인식이 있다면 이참에 밝혀주시지요.

독서는 교육적 순기능은 크고 역기능은 찾아보기 어려운 가장 효율적인 교육 활동입니다. 인성과 창의성은 물론이고 제4차 산업혁명시대가 요구하는 인문학적 소양도 독서로부터 생기는 힘이지요. 학교가 학생, 학부모, 선생님이 함

께 책을 읽는 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고, 가정에서 부모님과 아이가 함께 책을 고르고 읽는다면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겠어요?

요즘 읽고 있는 책 중에서 추천할 만한 것이 있다면요?

얼마 전 『군자를 버린 논어』를 읽고, 오늘부터는 『대한민국의 시험』을 보고 있어요. 저는 정독보다 가볍게 읽는 것을 선호하는데 이 책은 정독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바꾸기 위한 교육혁명을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수업과 평가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여러 측면에서 공감하는 바가 많아요. 읽고 난 책은 제2청사 1층 북카페 ‘지혜의 방’에 기증하고 있으니 다음 주쯤 오시면 볼 수 있겠군요.

경남교육가족과 도민에게 올해 포부와 당부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자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이들을 중심에 두는 교육, 현장중심, 지원중심의 교육행정을 펼쳐 교육본질에 더욱 집중하는 해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리하여 선생님은 수업에 집중하고, 학교는 교육과정 운영에 집중하며, 교육청은 학교운영을 지원하는 것에 집중하여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학부모님과 도민께서도 경남교육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바쁘실 텐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교육경남**

Education

내 안의 사람다움이 더불어 살아가는 힘이다



김상권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국장

나를 찾는 시간

생명의 소리, 꿈의 소리로 가득 찬 아이들의 재잘거림이 학교에 생기를 불어넣는 3월. 그 시작이 참으로 설레고 뜻깊다. 3월은 학교마다 신입생과 새 학년의 호기심과 설렘으로 두근거린다. 두근거림 속에는 새로움에 대한 떨림과 두려움도 함께 존재한다. 새로운 친구와 새로운 환경, 그것은 아이들에게 새로운 도전이다. 자신의 가능성을 찾아서 두리번거리고 한 걸음 발을 내디디기 위해서 아이들의 눈은 빛난다.

하지만 그 안에 도사리고 있는 두려움과 힘겨움은 우리 아이들의 또 다른 얼굴이다. 그것은 공부로만 잣대를 들이대는 우리 사회의 가장 슬픈 현실이기도하다. 친구를 친구로 보지 못하고 경쟁상대로만 보게 되는 환경 속에서 우리 아이들의 꿈은 얼마나 푸를 수 있을까. 아이들의 꿈에 푸른 생기를 불어넣어 주는 것이 우리 모두의 일이다. 최근 학교는 다양한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스마트폰, 학교폭력문제, 성폭력 등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교실 내에서 일어나고 있다. 네모난 교실은 이제 더 이상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아이들을 위협하는 공간이 되기도 한다.

일부 아이들은 창가에 버려진 식물들처럼 바짝 메말라 있으며 자신의 주위를 돌아볼 여유조차 없다. 아이들의 가슴에 푸른 생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학교와 사회

인성교육은 우리사회가 처한 문제와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일 뿐 아니라 성공적 미래사회로 진입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가 아이들의 삶을 위해 해 주어야만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인성교육이다. 사람이 사람으로서 마땅히 가져야만 하는 마음가짐, 그것이 인성이다.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이 인성교육이 아닐까 한다.

인성교육은 우리사회가 처한 문제와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일 뿐 아니라 성공적 미래사회로의 진입을 위한 필요조건이다. 바른 인성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변화를 위해 학교, 가정, 사회 모두의 인성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인성교육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 공동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다.

인성교육은 거창하고 먼 것이 아니다. 자신의 주위에서 휴지 하나를 줍는 것이 그 시작이다. 풀 한 포기에서 생명의 경이를 느끼고 친구의 손에서 따뜻한 온기를 느끼는 것이다. 그렇게 작은 것에서부터 아이들은 다시 푸르러질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와 가정이 살아있어야 한다. 학교와 가정이 아이들의 가슴에 따뜻한 안식처로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인성교육을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가정교육이고 예절교육이다.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얼굴보고 저녁에 잠깐 문 닫고 들어가는 아이들의 뒷모습을 보는 것이 우리 가정의 현실이지만, 자신을 찾아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아이들을 따뜻하게 품어야 한다. 자신이 얼마나 중요하고 멋진 존재라는 것을 아이들 스스로 깨우칠 수 있도록 손잡아 주고 다독여주는 학교와 가정이 필요하다. 대화가 있는 밥상에 마주 앉아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고민에 동참해야 한다. 부모가 자녀에게 행하는 생활 속의 가르침과 다양한 경험이 축적될 때 인성은 자연스럽게 기초가 마련된다. 또한 학교에서는 타인을 존중

하는 예절을 바탕으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따뜻한 인성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 모든 것이 한데 어울려 아이들은 자라고 자신의 내면을 직시할 수 있다.

더불어 살아가기

인성교육을 의무로 규정한 법안이 2014년 12월 29일 국회를 통과, 2015년 1월 20일 공포됨에 따라 6개월 후인 7월 21일 시행되었다. 인성교육진흥법은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시민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 명시된 인성교육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며 타인, 공동체, 자연과 더불어 사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우리 교육청도 존중과 배려의 인성교육 실천으로, 품격 있는 민주시민 육성의 비전으로,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인성교육을 위해 학생의 인성을 함께 가꾸는 학교문화를 조성하며 관계 중심 생활교육을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소통 및 연계 체제 구축을 통해 예(禮),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되는 핵심적인 가치 또는 덕목을 중심으로 참여형 인성교육을 설계하고 ‘앎’이 ‘실천’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교육활동을 체계적으로 조직·운영하고 있다.

인간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배려를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다. 즉, 더불어 살아가는 힘을 기를 수 있다. 더불어 살아간다는 의식은 관심과 배려의 공존의식(共存意識)이다. ‘더불어 살아간다.’는 말 속에는 각자의 존재성을 인정한다는 관계에 대한 이해가 깔려있다. 각자에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상호작용한다는 관계의 영향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는 사람은 더불어 살고 있는 것이다.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고자 하는 경험이야말로 우리 아이들을 더 튼튼하게 서게 해준다

세상에 자신의 존재가 외파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존재와 찰떡처럼 영
켜서 서로를 지지해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탱해주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21일부터 올해 1월말까지 72일간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진행한 ‘희망
2017나눔캠페인’에서 사랑의 온도탑 수은주가 얼어붙은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역
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또한 일부 학생들은 주머니 속 동전들을 1년간 모아 적십자
특별회비로 기부하는가 하면, 교내 축제 체험부스 참가수입과 먹거리 판매 수익금
전액을 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하는 등 전국의 많은 학생과 학교들이 나눔 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나눔의 실천은 우리 학생들이 관심과 배려로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는가?

측은지심이야말로 인성교육의 근간이다. 자신만을 향해 있는 시선을 바깥으로 돌
려보는 것이다.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고자 하는 경험이야말로 우리 아
이들을 더 튼튼하게 서게 해준다. 이런 작은 실천이 다른 사람들과 어깨를 곁고 천
천히 나아가는 방법이다.

인성이 실력이다. 세상을 바라보는 힘

인성교육진흥법에 대해 일부 학자들은 우려를 나타내기도 한다. 인성이란 우리 인
간이 주변 환경 및 주변 사람과 상호 작용하는 전형적 양식에 대한 광범위한 개인적
특성을 말한다. 또한 인성의 개념은 지능의 개념과는 달라 지능지수와 같이 수치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인간은 인성의 양(數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중

류 또는 어떤 유형의 인격, 즉 인격의 양상이나 스타일을 갖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 교육자들은 인성에 대한 폭 넓은 이해가 필요하다.

한 사람이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하기까지는 어린 시절의 성장과 발달이 토대가 된다. 이 토대는 청소년기 및 성인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또한 인성교육은 인성을 구성하는 덕목을 교육하는 방식이 아니라 대안으로서 상호의존적 인간을 지향하는 가치를 만들어가야 한다. 매년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학교폭력이 단순히 교내 학생들 사이에 일어나는 비행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안은 구조적 문제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점에 대부분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얼마 전 뉴스를 통해 생활 범죄를 저지른 사람 3명 중 1명이 10대 청소년이라는 소식을 접했다. 주인 없는 스마트폰을 돌려주지 않았는가 하면 길거리에 놓인 자전거를 가져간다는 등, 중고장터서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는 등 청소년들이 도덕적 역제가 이뤄지지 않아 잘못된 행동을 한다고 한다.

어릴 때부터 제대로 된 인성교육을 받지 못하면 잘못된 길로 접어들 수 있기에 생활범죄에 노출된 청소년들에게 인성교육은 정말 꼭 필요한 시대 교육이라 할 수 있다. 인성 가치 덕목을 학생들에게 주입식으로 지도하기보다는 미래사회를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바람직한 성품 및 역량들을 중심으로 교육활동을 체계적으로 조직 운영해야 한다.

입시위주의 교육 풍토에서 교육활동을 계획하고, 바른 인성의 거울이 되는 ‘교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공부 못하는 학생은 없다. 경쟁에 불리한 학생이 있을 뿐이고 좋은 환경과 기회를 만나면 학생은 반드시 변화한다. 학력향상은 학생들의 필요이고 꿈이다. 그러기에 학력향상도 중요하지만 더함과 나눔의 가치를 바탕으로 한 학력향상과 진로 탐색으로 저마다 꿈을 찾아 갈 수 있어야 한다.

우리 교사들이 학생 중심의 행복교육을 추구하고 가르치며 배우고 성장한다는 교학상장(敎學相長)의 겸허한 자세로 교육에 임하는 성실한 태도를 가질 때, 올바른 인성을 가진 행복한 글로벌 리더들을 길러낼 수 있을 것이다.

삶의 가장 큰 행복은 우리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믿음으로부터 온다. 인성교육은 우리 사회가 안은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고 인정이 넘치고 따뜻한 사회로 이끌어 줄 수 있으며 나를 찾고 세상을 바라보는 힘을 길러줄 수 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자 3월의 새 학기에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느냐에 따라 우리 사회가 달라질 수 있다. 우리 모든 아이들이 사랑받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꿈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한다.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희망이며, 희망을 품는 것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지름길이다.

ksg272@korea.kr



학생의 성장을 돕는 과정 중심 평가



이혜심
교육부 연구사

I. 들어가며

최근 우리 사회의 핵심 키워드는 당연히 인공지능이다. 지난해 다보스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화두가 던져지고 우리나라에선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 대결이 화제가 되면서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급속히 퍼졌다. 인공지능은 스스로 학습하고 진화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인간이 처리하기 불가능한 수많은 양의 데이터 처리가 가능하다.

또한, 2016년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에서 미국 뱅크 오브 아메리카(BOA)와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연구팀이 조사한 ‘직업의 미래(The Future of Jobs)’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까지 급작스러운 노동시장 변화로 인해 최소 510만 개 이상 최대 71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전 세계 아이들의 65%는 지금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직업에 종사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급변하는 지능정보사회를 맞이하여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우리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평가해야 하는지, 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II. 과정 중심 평가의 이해

그동안 우리 교육은 시대의 요구에 따라 미래 사회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과정 개정, 수업 및 평가 방법의 개

선 등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특히,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자유학기제 전면 실시, 2015 개정 교육과정 도입 등에 따라 자연스럽게 평가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가 지속되어 왔다. 이에 교육부는 2017년 교육 비전을 “모두가 성장하는 행복교육, 미래를 이끌어가는 창의인재”로 설정하고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학생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평가 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학생평가는 학생 참여형 수업과 연계하여 학습 과정에서 일어나는 학생의 변화에 주목하는 과정 중심 평가를 강화하고 있다.

과정 중심 평가란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에 기반을 둔 평가 계획에 따라 교수·학습 과정에서 학생의 변화와 성장에 대한 자료를 여러모로 수집하여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평가이다. 즉 교과 성취기준을 바탕으로 교수·학습과 연계하여, 학생이 어떻게 성장하고 발달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학생의 학습 과정을 교사가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학생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우수한 점을 심화·발전시킬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러한 과정 중심 평가는 평가의 어원과 일맥상통하다. 평가의 어원을 살펴보면 ‘옆자리에 함께 앉는 것(to sit with)’을 의미하는 라틴어의 ‘assidere’에서 기원하였다. 위긴스(Wiggins, 1993)는 평가의 본래 의미를 논하면서, 평가를 시행할 때 평가가 단순히 ‘학생들에 대한 판단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을 돕고 함께 하는 것’이라고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생이 ‘얼마나 많은 지식을 알고 있

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가?’ 그리고 ‘어떻게 성장·발전해 나가는가?’에 대한 관심으로 평가의 관점을 바꿔야 한다. 학습 결과에 도달하기까지의 수많은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학생의 성장을 지지할 때 비로소 참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과정 중심 평가에서는 인지적 영역뿐만 아니라 학생의 정의적 영역에 대한 평가도 중요하다. 학생이 학습 과정에 참여하면서 보이는 태도, 흥미, 배려 등 정의적 영역에 대한 평가는 학생 자신에 대한 깊은 성찰을 유도하고 전인적인 평가로서의 가치도 지닌다. 또한, 교사 평가 이외에 학생의 자기 평가와 동료와의 상호평가의 기회를 제공한다. 학생 스스로 자신의 학습을 돌아보면서 무엇이 부족하고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Ⅲ. 수행평가 현장 정착을 위한 지원

그렇다면 수업 장면에서 과정 중심 평가의 방향성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수행평가’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부터 종래의 지식 암기 위주의 평가 체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적인 평가 체제로 수행평가를 실시하였다. 수행평가는 학생이 가지고 있는 지식, 기능, 태도 등의 능력을 직접 수행으로 나타내 보이는 방식의 평가를 의미한다. 학생이 만든 산출물이나 실제 수행 과정과 결과를 평가하는 것으로 교수·학습의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도

중시하는 평가이다. 그러나 기존의 결과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며, 학부모나 사교육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과제(homework)형 평가로 이루어져 형식적인 평가라는 비판과 함께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발달을 촉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교육부는 수행평가의 취지를 살려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2011년에 「중등학교 학사관리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 방안에는 학생평가의 질 제고를 위해 수업과 연계한 수행평가 실시와 더불어 서술형 평가의 비율을 20~40%로 확대하여 학생이 스스로 자신의 생각을 구성하고 이를 표현함으로써 창의성, 문제해결력 등을 신장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지난해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의 일부 개정을 통해 초등학교와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전문교과 실기과목 등은 수업활동과 연계하여 수행평가만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수행평가를 교과 수업 시간 중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교육부의 훈령 개정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기존의 지식 암기 위주의 평가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적 평가로써 수행평가의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수행평가의 본래의 취지를 살리는 동시에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올해 3월 교육부는 수행평가의 질 제고를 위해 수행평가 안내서인 '과정을 중

시하는 수행평가 어떻게 할까요'를 비롯하여 '수행평가와 연계한 학생부 기재 예시', '교과별 수행평가 문항', '수행평가 홍보 동영상' 등을 개발 보급하여 현장에서 과정 중심 평가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IV. 나가며

새로운 가치 창출을 요구하는 지능정보사회에서는 상상력에 기반을 둔 창의융합형 인재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우리 교육은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 양성에 집중해야 한다. 또한, 2015 개정 교육과정 및 학생 중심의 수업 개선과 함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존의 학생평가 방식인 정답 찾기, 단편적인 지식 암기 위주의 평가, 결과 중심 평가 등 익숙한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 한 명 한 명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평가로 전환해야 한다.

그리고 과정 중심 평가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과 더불어 무엇보다도 학생평가에 대한 교사의 관점 전환이 필요하며, 전문성 있는 평가를 위한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corazon@moe.go.kr

030 **특집 | 2017 경남교육의 꿈**

- 더 나은 실패를 위한 한 발을 내딛으며

김정애 | 계룡중학교 교사

- 아름다운 도전!

김년수 | 해운중학교 교사

- 제2청사 개청과 경남교육의 새로운 도약

강정희 | 경상남도교육청 사무관

2017, Spring story
Education
Gyeongnam

더 나은 실패를 위한 한 발을 내딛으며



김정애
계룡중학교 교사

한창 임용고사 2차 시험을 준비하던 무렵이었다. 그 당시 인기 있던 드라마에서 삼신 할머니가 주인공에게 나쁘게 굴었던 담임교사를 찾아가 “더 나은 교사일 순 없었니?”라고 묻는 장면이 있었다. 그 말을 들은 담임교사는 눈물을 펄펄 쏟아내며 울었다. 별 생각 없이 드라마를 보던 나도 그 장면을 보고 그 교사와 함께 영영 울어버렸다. 내가 만나게 될 우리 반 아이들도 자신이 살아갈 인생에서 각각 한 편의 드라마 주인공이 될 텐데, 그 아이들의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교사로서의 책임감이 무겁게 다가왔기 때문이다.

감사하게도 오랫동안 준비해 온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 이전과는 다른 2월을 보내고 있다. 3월 2일 첫날부터 모든 것을 잘 해내는 교사가 될 수는 없겠지만, 내가 하고 있는 행동과 말에 대해 지금의 각오를 떠올리며 반성해 나가는 교사가 되고 싶다. 누군가의 인생에서 나라는 교사가 악역이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틈을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작년에 학교에서 일하면서 시험을 준비했다. 처음에 나는 아이들에게 잘하는 모습만을 보이고 싶었다. 그래서 아이들의 질문에 단정지어 대답하려고 했고, 교실에서 겪게 되는 갈등에 대해 다른 교사들과 고민을 공유하지 않고 혼자 해결하려 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잘하는 교사처럼 보이기 위한 임시방편일 뿐, 좋은 교사로서의 교육방법이 아님을 이내 알게 되었다. 아이들의 질문에 대해 아이들과 함께 답을 찾아 나가고, 동료 교사와 함께 고민하며 나누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겠다. 자존심을 내세우기보다는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이는 교사가 되겠다. 아이들에게 틈을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틈을 내어 줄 수 있는 교사가 되겠다.

틀을 가지지 않는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해야 한다.’라는 답을 가지지 않는 교사가 되고 싶다.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 나도 노련한 교사가 될 수 있겠지만, ‘이런 경우는 보통 다 이래’라거나 ‘학생이라면 이렇게 해야 해’라는 답을 정해놓고 아이들을 바라보지는 않겠다. 아이들이 모두 다름을 이해하고, 각각의 아이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교사가 되고 싶다. 수업과 지도에 있어서도 어떠한지 한다는 나만의 틀을 갖지 않겠다. 현재의 방법에 만족한다고 해도, 또 다른 수업 방법과 학생 지도 방법을 연구해 나가는 교사가 되고 싶다. 끊임없이 배우고 연구하고, 더 좋은 방법을 찾아 나가겠다. 누구로부터든 배우고, 그것을 나의 잣대로 한정짓지 않겠다.

첫 출근을 기다리며 설레기도 하고, 떨리기도 한다. 아마 나는 처음부터 잘 해내지는 못할 것 같다. 아무리 열심히 해 보려고 해도 내 마음 같지 않은 일들이 생길 것이다. 하지만 나는 ‘점점 더 나은 실패’를 하고 싶다. 나의 실수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 실수로부터 반성할 점을 찾아 더욱 성장하는 교사가 되고자 한다. 나는 교사가 되기 위해 5번의 시험을 쳤고, 4번을 실패했다. 4번의 실패를 겪는 동안 다시는 느끼고 싶지 않은 절망감을 맛보기도 했지만, 배움이 없는 실패는 없었다. 나의 자만한 마음을 반성하고, 실패를 겪는 아이들에게 진심으로 공감해 줄 수 있는 경험을 가지게 되었다. 시험의 결과가 나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며

실패해도 인생은 계속되므로, 스스로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앞으로 겪게 될 실패들 역시 더 나은 나를 만들어 줄 것이기에, 나는 더욱더 열심히 실패하고, 그로부터 열심히 배우려 한다. 곧 다가올 교사로서의 첫날이 떨리지만 두렵지는 않은 이유이다.



아름다운 도전! - 네팔의 오지학교를 찾아서



김년수
해운중학교 교사

2017년 1월 8일 해운중학교 교원 4명과 학생 12명은 겨울 방학을 이용하여 16일 간의 히말라야 대장정에 올랐다. 경유지인 방콕행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평생 경험해 보지 못한 설렘과 두려움으로 상기된 학생들의 표정을 바라보며 힘든 여정 속에서 어린 학생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우리의 두려움을 늘렸다.

비행기 안에서 그 동안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온 과정을 곰곰이 되짚어 보았다. 2016학년도 학교 특색과제를 정하는 회의 중에 아파트 숲 속에 살면서 학교와 학원만을 오가는 학생들에게 보다 넓은 세계를 보고 경험할 수 있는 실천적 체험활동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고민하였다. 이 대장정은 「무학에서 히말까지」해운 극기 3품제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다.

우선 히말라야 등정을 위한 기초체력과 산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가지기 위하여 5월 21일에 무학산을 다녀오는 예비품을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총 120명이 실시하였다. 예비품 참가자 중 76명이 6월 11일 1품인 지리산 등반을 실시하였으며, 극한의 상황을 대비하여 여름방학 때 8월 17일 당일 코스로 45명이 2품인 한라산 등반을 통하여 히말라야의 꿈을 키워 나갔다. 12명의 3품 참가희망자를 최종 선정하여 12월 10일과 24일, 무학산 정상 오르기와 둘레길 트래킹으로 최종 준비를 마무리하였다. 태국 공항에서 9시간의 기다림도 네팔 학교에 선보일 댄스 연습의 열정 속에서 빠르게 흘러갔다. 네팔 카투만두에 도착하여 숨으로 귀를 막아도 시끄러운 전세기를 타고 포카라로 이동하였다. 페디의 작은 마을에서 필요한 짐을 꾸린 배낭을 지고 나서야 비로써 트래킹이 시작되었다. 시작부터 돌계단과 가파른 오르막의 힘든 여정에서 서로를 응원하며 태어나서 처음으로 좁디좁은 로지에서 추위와 우박이 함께하는 담푸스(1,650m)와 고지 적응을 위한 피탐테우랄리(2,100m)에서의 밤을 보냈다.



아침부터 찾아온 두통을 견디며 포레스트 캠프(2,550m)에 도착하여 잠시 라면으로 점심을 해결하고, 눈길과 어둠을 헤치고 5시 경 로우캠프(2,970m)에 도착하였다. 10시간의 장거리 트래킹으로 지친 학생들은 하나 둘 고산병과 추위에 힘들어 하였다. 어둠과 추위, 피곤함에 쉽게 움직이지 않는 몸을 추슬러 손전등 불에 의지하며 서둘러 텐트를 치고 지친 학생들에게 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지만 쉽게 회복되지 않았다. 고산병을 호소하는 학생, 출발부터 화장실을 못가서 복통을 호소하는 학생, 끼입은 옷 때문에 속옷이 젖어 체온이 내려가 고통스러워하는 학생까지. 아이들의 문제를 겨우 해결하고 가쁜 숨과 추위와 두통 속에서 잠을 청해 보았지만 쉽사리 잠은 오지 않았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얼음으로 덮여있는 텐트 밖으로 나와 아픈 학생들을 살펴보니 다행스럽게도 많이 호전되어 있었다.

그렇게 추웠던 지난밤도 일출과 함께 사라지고 눈앞에 마차푸차레의 위용이 펼쳐졌다. 따뜻 따뜻한(따뜻한 물)로 언 몸을 녹이고 출발하였다. 낭게 단다(3,300m)에 도착하여 지난밤 눈표범의 공격으로 야크 2마리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고산지대에 접어들었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 히말라야 감자로 만든 수제비를 점심으로 먹고 고도를 높이는데 안개가 자욱하게 내려앉았다. 한걸음씩 걸음을 옮길 때마다 머리가 “땡땡”하고 울렸다. 그저 앞만 보고 걷는다는 표현이 맞을지도 모르겠다.

Himalayas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길 옆 골짜기에는 황금빛으로 물든 풀들만이 무성했다. 마치 내가 사자의 등 위를 걷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며 하얀 눈으로 덮여있는 하이캠프(3,700m)에 도착하였다. 텐트에서 숙박을 할 계획이었지만 많은 눈과 학생들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로지에서 자기로 했다. 가지고 간 옷과 모자, 장갑 등으로 무장을 하였지만 낮과 밤의 기온 차이는 대단하였다. 눈을 녹여 마실 물과 저녁을 만드는 상황은 텔레비전에서만 볼 수 있는 장면이라 생각하였는데 우리가 체험할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 좁은 로지 바닥에서 매트와 침낭으로 추위와 두통, 코고는 소리와 씨름하며 지나긴 밤을 보낸다는 것은 상상 그 이상이었다.

드디어 마르디 히말(4,450m) 등정의 날이 밝았다. 안나푸르나와 히운츄리가 아침 햇살을 받아 황금색으로 물들었다. 목표를 향해 가는 마지막 과정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낭떠러지와 험한 길이어서 단단한 준비가 필요하였다. 아침까지 마지막 트레킹을 망설이던 사람들도 제법 씩씩하게 어려운 난관을 조심스럽게 헤치며 느린 산행을 하였다. 어제와 확실히 다른 점이 있다면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것이 우리의 정상 등반을 축복하는 것 같았다. 정말 운이 좋았다. 안나푸르나와 히운츄리, 그리고 마차푸차레와 가장 가까이 얼굴을 대하는 오늘, 이렇게 구름 한 점 없다는 것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한 걸음 한 걸음 눈 위를 걸어 드디어 도착한 정상! 감동과 희열 그 자체였다.





스틱을 서로 부딪치며 격려하고 끌어안으며 뜨거운 감동의 소리를 외쳤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기분으로 단체사진과 저마다의 멋진 포즈로 추억을 만들며, 우리는 이 순간의 감동을 만끽하였다.

한 걸음만 더 앞으로 가면 히말라야의 정상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었다. 그러나 추위와 두통, 그리고 지친 다리 때문에 우리는 아쉬움을 뒤로 하고 빠르게 하산하였다. 하이캠프에서 숙박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예정에 없던 로지에서의 생활로 로우캠프까지 장거리 이동을 할 수 밖에 없었다. 다시 돌아온 로우캠프는 추위와 고산병으로 힘들어하던 장소에서 편안함을 주는 보금자리로 변해 있었다. 네팔 학생들에게 선보일 댄스 연습과 주변 정리로 마차푸차레와 함께하며 여유를 즐길 수 있었다.

1월 15일, 텐트를 걷어 시딩(1,885m)으로 장소를 옮겼다. 정글 숲을 방불케 하는 큰 나무와 이끼, 갈림길에서 잠시 망설이기도 하였지만 고산병으로 힘들어 하던 두통은 씻은 듯이 나았다. 우뚝 솟은 전망 좋은 곳에 텐트를 치고 산행 후 처음으로 간단하게 씻을 수 있었고, 옷도 갈아입었으며, 학교를 방문하여 공연할 댄스 연습과 마을을 돌아보는 여유를 즐겼다. 양지바른 마당에서 아이들에게 머리를 빗겨주는



엄마와 방이 추위 마당에서 옷을 덮고 자고 있는 노인들의 모습, 우리를 졸졸 따라 다니면서 두 손을 합장하여 나마스테(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는 아이들에게 사탕을 건네며 우리들의 60~70년 대 모습을 그려 보았다.

다음날 라왕(1,450m)으로 이동하던 중 눈 가운데 있는 작은 학교를 지날 때 등교하는 학생들과 선생님을 만나 학교를 구경하게 되었다. 시멘트 바닥의 허름한 건물에 칸을 나누어 교실을 만들었지만 작은 칠판과 긴 책걸상 2~3개가 전부였고 교실은 좁고 어두웠으며 선생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기대하는 듯 학교의 어려운 사정 이야기를 했다. 아이들에게 사탕 몇 개를 건네고 나오는 발걸음이 무거웠다. 비탈길의 작은 도로를 따라 끝도 없이 걷다 보니 학교 2개를 지나게 되었는데 한결 같이 운동장에 삼삼오오 모여 수업을 하고 있었고 우리가 지나가면 뛰어와 나마스테를 외치며 반겨 주었다. 라왕에 도착하여 눈 가운데 텐트를 치고 '버킷리스트 3가지'를 주제로 1분 스피치와 댄스 공연을 연습하였다.

드디어 바라부리 스쿨을 방문하는 날이 밝았다. 서둘러 텐트를 걷고 버스에 올랐다. 좁은 비포장도로를 롤리코스트 타듯 손잡이를 붙잡고 도착한 바라부리. 눈에는



Schools in Nepal

남녀 청년들이 어울려 배구를 하고 있었고, 아이들은 술래잡기와 자치기를 한다고 떠들썩하였다. 눈 가운데 텐트를 치고 우리들도 같이 어울렸다. 배구 실력이 보통 이상이었다.

바라부리 스쿨 운영위원장이 산에서 직접 캔 더덕과 닭을 잡아 내일의 일정에 대하여 의논하기 위해 텐트를 찾았다. 저녁식사 후 3~4명씩 조를 이루어 네पाल의 가정생활도 알아보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기 위하여 홈스테이 행사를 실시하였다. 정전으로 인하여 손전등에 의지하여 찾은 가정은 어둠에 묻혀 있었고, 힘겹지만 단란한 가족이 함께하는 부엌에서 간단한 소개와 함께 학생들이 준비한 선물을 준 뒤 부엌에 침낭을 펴고 하룻밤을 보냈다. 설레는 마음으로 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일찍 일어나 텐트 밖으로 나가니 동네 주민들이 벌써 모여 있었다. 마을 농약대를 앞세워 준비한 체육용품과 선물을 나누어 들고 눈을 가로질러 바라부리 스쿨에 도착하니 교문 앞에서부터 꽃으로 만든 목걸이와 이마에 행운의 빈디를 찍어 주며 환영해 주었고, 작은 운동장에는 학생들과 마을 주민이 가득 모여 있었다. 간단한 인사를 시작으로 우리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을 증정하고 아

이들과 어울려 미니 체육대회를 하였다. 이어서 함께하는 미술수업으로 준비한 카고백에 우리나라 태극기와 네팔의 국기를 만들어 건네주고 마을 주민들이 아침부터 준비한 샌드위치와 음료수를 나누어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작은 선물에도 크게 감동하여 웃고 감사하는 모습에 우리의 마음은 벅찼다.

다음날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정도의 좁은 비포장도로를 지나 도착한 곳은 네팔의 외곽 빈민촌에 자리 잡은 바니빌라스 세컨드리 스쿨이었다. 12학년 500명 정도가 다니고 있는 학교라기에는 규모가 너무 작았다. 미리 운동장에 모여 우리를 기다리는 전교생에게 해운 축제 기간에 모금한 성금으로 구입한 과학기자재와 배구공과 축구공, 플라잉디스크를 전달할 때는 박수와 함성이 우레와 같았다.

교장선생님이 예쁜 스카프를 목에 둘러 주었고, 무대에 자리를 마련하여 한 명씩



네팔 트래킹은 힘든 순간도 많았지만 그 힘든 순간들을 견뎌 낼 수 있었던 것은 행복한 순간이 더 많았기 때문이다

소개도 해주었다. 학년별로 예쁜 여학생들의 다양한 민속공연을 관람하고 우리가 준비한 댄스를 학생들과 함께 추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어두컴컴한 시멘트 바닥에 책걸상이라고 부르기도 힘든 나무판자 몇 개와 작은 칠판으로 이루어진 교실과 책걸상 몇 개만 덩그러니 놓여있는 교무실을 보며 좀 더 많이 준비하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

공항에서부터 시작된 기나긴 기다림의 연속, 아침이면 온 몸이 로봇이 되어 나오는 얼음 덮힌 텐트 속 새우잠, 처음부터 우리를 괴롭혔던 고산병과 추위, 우리는 이 모두를 서로 도우며 극복해냈다. 좁은 비포장도로에서 먼지와 흙, 흙을 파고 텐트를 설치한 간이 화장실 사용도 이제는 추억이 되었다.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된 죽음과 삶이 공존하는 바그마티 강에서의 메케한 냄새와 함께 화장하는 모습을 남긴 파슈파티나트 사원, 수많은 순례자들의 간절한 기원이 함께하는 보드나트 사원, 지금은 몰락한 왕궁의 무너진 담, 매연과 소음 그리고 무질서 속에서도 질서로 꾸며진 가난하지만 행복한 나라인 네팔 트래킹은 힘든 순간도 많았지만 그 힘든 순간들을 견뎌 낼 수 있었던 이유는 행복한 순간이 더 많았기 때문일 것이다.

경제능력으로 이해하기 힘든 그들의 순박함과 그 곳의 공기처럼 맑은 영혼들을 우리는 만났다. 그리고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하기 힘든 히말라야의 장관을 만났고, 그 히말라야를 불태우는 일출과 일몰을 만났다.

그 곳에서의 16일 간 여정을 견뎌 낸 우리 아이들의 눈빛은 더욱 빛났고, 가슴은 더욱 넓고 깊어졌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가 만난 위대한 자연과 그 속에서 소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래도록 우리들 마음속에 남아 있을 것이다.



제2청사 개청과 경남교육의 새로운 도약



강정희
경상남도교육청 사무관

현 위치의 도교육청 청사는 1983년에 신축하여 34년이 경과된 건물로 경남교육의 역사와 함께 자리를 지키고 있다. 세월이 흐른 만큼 노후하지만 개축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고 사무실과 회의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여 여러 교육 행사를 타 기관의 시설을 빌려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늘어가는 교육행정수요에 맞는 교육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추가 공간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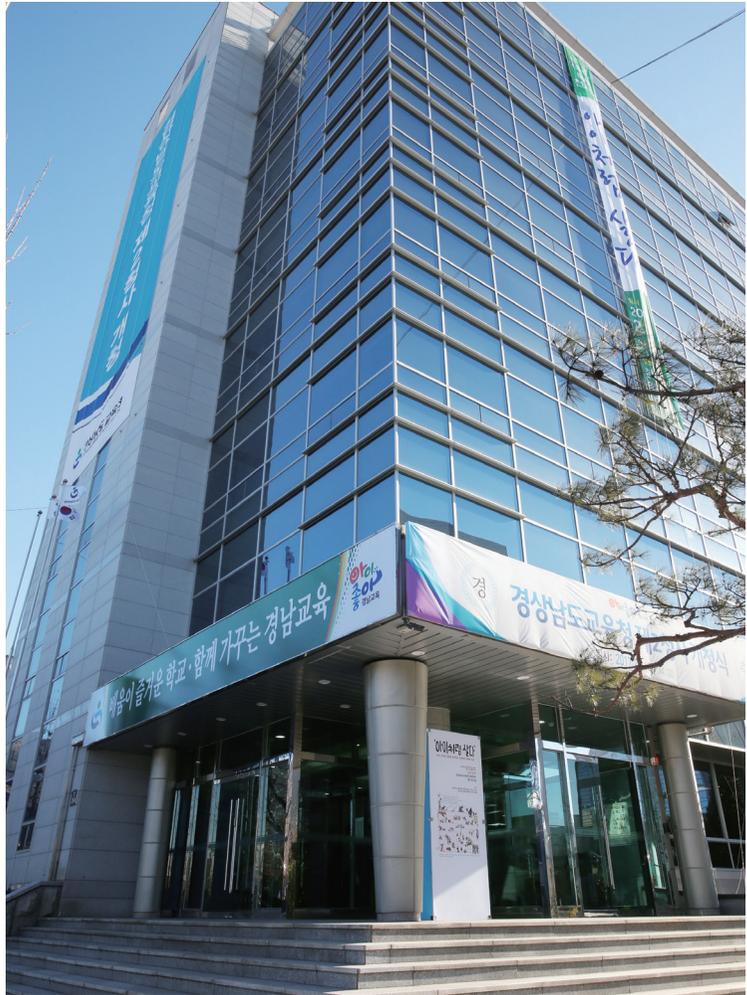
이에 따라 도교육청 청사와 가까운 LH별관 사옥을 매입하여 지난 2017년 2월 2일 경상남도교육청의 제2청사가 문을 열었다. 제2청사는 지하1층, 지상8층으로 연면적 4,538.45㎡와 주차장 1,209.96㎡ 등 총 5,748.41㎡의 규모이다. 제2청사는 사무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을 누구에게나 개방하고 학생, 학부모, 도민 등 다양한 교육공동체 소리를 귀담아 들어 소통하고 공감하는 경남교육을 만들고자 하는 교육감님의 교육 철학에 따라 청사 이름을 ‘소통관’으로 명명하였다.

소통관을 채우는 공간

제2청사 소통관은 단순한 사무 공간의 확장이 아니다. 도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공간의 장으로 사무 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을 도민에게 개방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1층 북카페 ‘지혜의 방’은 따뜻한 커피와 음료를 마실 수 있는 장소로 경남교육청을 방문한 사람들의 쉼터가 되어 주고, 7층 회의실과 8층 연회장(식당)은 도민들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의사 소통의 공간이 되고 있다. 또한 북카페 벽면에는 평소 독서교육에 관심이 많은 교육감을 비롯한 교직원들이 기증한 다양한 책들과 (주)센트럴에서 기부한 책을 포함해 1만여권이 도서들이 서고에 빼곡히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소통관— 모든 시설 도민에게 개방



이곳에서는 차 한 잔의 여유뿐 아니라 부담 없이 휴식을 취하면서 책을 읽을 수 있으며, 온돌 마루가 마련된 코너는 엄마가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놀이도 할 수 있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특히, 지혜의 방을 찾는 방문객에게 특수 학교인 창원 천광학교 학생들이 코디와 함께 직접 커피를 만들어 제공하고 있으며 사회생활을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는 직업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미래 바리스타로서의 자질을 현장에서 실습하며 배우는데 충분한 장이 될 것이다. 북카페 내 전시실에서는 지역 작가들은 물론, 학생, 학부모와 교직원 등 경남교육가족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이를 통해 도민들이 일상 속에서도 문화와 예술을 체험하고 작가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교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교육활동 본연의 업무를 위한 공간에도 충실하다. 본청의 창의인재과, 교육복지과, 감사관 3개 부서와 함께 경남 대입 정보센터, 경남 진로 교육센터, 취업 지원센터, 다문화 교육센터 등 4개 센터와 경상남도 교육시설 감리단, 학교안전공제회가 이전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새로운 보금자리를 잡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학생들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과 정보제공을 위한 4개 센터의 역할이 기대된다. 맞춤형 대학 진학을 도와주는 '경남 대입 정보센터'와 진로계획 수립을 도와주는 '경남 진로 교육센터', 다문화 가정 학생 지원을 위한 '다문화 교육센터', 마이스터고 재학생들의 취업지원을 하는 '취업 지원센터'가 제2청사에 모여 있어 학생과 학부모들의 고민과 진로를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소통관을 통해 교육청의 문턱을 낮추다

경남교육청 2청사 소통관은 교육청의 사무공간뿐만 아니라 도민과 함께 공간을 향유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이곳은 어렵고 불편한 문턱이 높은 곳이 아니라 도민과 소통하고 행복을 생각하는 장소로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이 독서와 토론, 공연과 전시, 회의를 할 수 있는 지역 명소로서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활용되기를 기대해본다.

I. 경상남도교육청 제2청사 시설 안내

1. 제2청사 현황 개요

경상남도교육청 위치



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264(용호동8-2)

주요시설

- 1F : 북카페 '지혜의 방', 전시실
- 2F : 경찰실, 대입정보센터, 경남진로교육센터, 관리실
- 3F : 창의인재과, 취업지원센터, 다문화교육센터
- 4F : 교육복지과, 학교안전공제회, 전산실
- 5F : 감사관
- 6F : 교육시설감리단
- 7F : 대회의실, 중회의실, 소회의실1, 소회의실2
- 8F : 연회장, 체력단련실

2. 회의시설 안내

대회의실

- 수용인원: 81명
- 프로젝션 빔 1대, 스크린 1대, 컴퓨터 1대

중회의실(공직자윤리위원회실)

- 수용인원: 20명
- 프로젝션 빔 1대, 스크린 1대

소회의실(1실, 2실 구조동일)

- 수용인원: 각 실별 20명
- 방송, 전자장비 없음
- 각 실별 강연대 1개, 화이트보드 1개

연회장

- 수용인원: 56명
- 프로젝션 빔 1대, 스크린 1대
(※ 노트북 연결하여 사용가능)

II. 경상남도교육청 별관 및 2청사 시설 개방 계획

1. 시설 개방 현황

시설 개방 범위 및 개방시간

본청별관	구분	수용인원	개방시간		
			평일	주말(토)	
제2청사	3층	공감홀	190명	09:00 ~ 20:00	10:00 ~ 17:00
	8층	연회장	56명		
	7층	대회의실	81명		
	7층	중회의실	20명		
	7층	소회의실I	20명		
		소회의실II			
1층	북카페 및 전시관	40명			

신청방법 : 시설개방 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팩스로 제출

2. 시설 및 사용료

개방 시설 사용료

사용료는 시간당 계산

본청별관	구분	수용인원	사용료
제2청사	3층	공감홀	25,000원
	8층	연회장	15,000원
	7층	대회의실	
7층	중회의실	20명	10,000원
	소회의실I	20명	5,000원

비고 :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시설 개방 조건

- 주중 근무시간 중에는 교육청(학교) 행사 및 회의에 우선적으로 사용
- 교육재산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 도민, 각종 단체, 학부모, 학생들에게 개방

시설 개방 제한

-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 경우
- 정치적 행사로 판단되는 경우
- 공공 목적을 빙자하여 사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불법적인 집회 및 시위를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경우

III. 경상남도교육청 제2청사 전시실 운영 계획

1. 전시실 현황

위치 : 경상남도교육청 제2청사 1층 북카페 내
 규모 : 106.92㎡(32평), 전시벽면 4조(81.3㎡)

2. 전시실 운영 계획

전시실 운영시간

구분	운영시간
평일	09:00 ~ 20:00
토요일	10:00 ~ 17:00
일요일 공휴일	휴관

전시실 운영 방법

- 예술인, 교직원·학부모·학생 등 교육가족들의 신청을 받아 작품 전시
- 전시실 대관요금 : 무료

전시실 대관 절차 안내

구분	내용
대관신청 접수	- 대관신청서 및 작품소개서 등을 작성하여 담당부서에 제출 - 담당부서: 경상남도교육청 제2청사 2층 관리실
대관승인 통보	- 전시의 성격 등을 심사하여 대관 가부를 결정하여 대상자에게 우선 통보 - 신청에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 접수 순위 기준으로 작품성을 심의하여 승인

※ 담당자 연락처 : 경상남도교육청
 총무과 총무담당 055)210-5105

kjhsunny@korea.kr



046 **특집 II 소통과 공감의 기술**

- 비폭력 대화로 통하는 교실

현정희 | 용남초등학교 교사

- 평화로운 학급 공동체를 위한
회복적 생활교육

노용승 | 구산중학교 교사

- 지금 기분이 어때?

고정택 | 삼천포중학교 교사

2017, Spring story
Education
Gyeongnam

비폭력 대화로 통하는 교실



현정희
영남초등학교 교사

I. 들어가며

어느 선배교사가 하루는, “성공한 교사는 행복한 교사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다. ‘맞다! 과연 나는 지금 행복한가? 나의 학교생활은 행복한가?’하고 한 번쯤 생각해 볼만하다. 행복하지 않다면 나는 무엇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가? 그 속에는 관계의 문제가 있을 것이다. 어느 학교에서든 교사와 학생, 교사와 학부모, 교사와 교사간의 갈등은 항상 존재한다.

이 갈등과 요구의 충돌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행복한 관계를 만들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 행복한 관계를 방해하는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화’를 부르는 대화 방식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고자 한다. 그런데 학생들이 그만한 열의를 보여주지 않아 낙심하는 일이 많다. “너를 위해 그러는 거야”, “나중에 배워 놓길 잘했다고 생각할 거야”, “재능이 있으니까 조금만 신경 쓰면 아주 잘 할 수 있을 텐데”라고……. 다시 3월이 시작되었다. 올해는 어떤 아이들을 만나게 될까?



어떤 이야기와 일들로 채워질까? 기대와 여러 계획으로 설레는 마음이 된다. 올해, 나에게 특별한 아이가 찾아왔다. 2년 동안 교사와 친구들을 너무 힘들게 했던 아이, 그리고 그 아이와 똑같이 교사와 학교를 힘들게 했던 학부모. 그래서 교사들이 3학년 담임이 되기를 기피하게 만들었던 아이.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선 교사와 학생 사이에 특별한 관계, 일종의 유대감, 연결고리, 다리 같은 것이 필요하다. 즉 가르치는 일보다 교사와 학생의 관계를 좋게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 나는 그 특별한 보석 같은 아이를 어떻게 만나고 대화할지에 대한 그림을 그려보고자 한다.

II. 누구나 사랑받고 싶다

나는 교육함에 있어 아이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누구나 사랑받고 싶다. 학교에서 말썽꾸러기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다보면 그 친구들도 다 알고 있다. 어떻게 해야 사랑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알고 있는데 왜 안하냐고 다그쳐봐야 소용이 없다. 잘 안 되는 것이다. 우리는 좋은 것을 알고 있지만, '좋은 것'보다는 '익숙함'으로 우리의 행동이 무의식적으로 행해지게 되어 있다. 자주 혼나는 친구들도 교사와 친구를 괴롭히고 싶어서가 아니라 사랑받고 싶지만 알지 못하는 힘으로 혼나는 익숙한 행동을 하고 혼나게 되는 것이다. 그럴 때, “너는 왜 그만 식으로 밖에 일을 못하냐?”라고 비난을 한다면 이런 말들은 오히려 듣는 이를 화나게 만들고 저항을 하게 만들어 상황을 더 악화시키게 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서로를 화나게 만드는 대화를 통해 관계를 쉽게 망친다. 어떻게 하면 이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우선 나는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누구나 사랑받고 싶다. 누구나 소중한 존재이다'



이렇게 보고 나면, 자주 혼이 나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아이를 ‘힘들다!’가 아니라, ‘에고, 이제까지 어떻게 살았으면…….’하고 연민의 정으로, ‘더 사랑해줘서 사랑받는 법을 알게 해줘야지’라고 더 사랑받는 존재로 만들고 싶어진다. 그리고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마음이지만, 표현되는 것은 대화로 표현이 된다. ‘화’를 주고받는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화’를 다르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 첫 단계는 ‘화’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화가 나는 것은 결코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 때문이 아니다. ‘화’는 우리가 가진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그 상황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그를 비난하는 것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 바꾸기가 우선이 된다.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야 한다.

III. 비폭력대화로 통하기

1. 아이를 이해하기

학년 초가 되면,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아이를 이해하는 활동을 한다. 또한 학생들도 서로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 서로를 이해하고 나면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의 여지를 줄이게 된다.

가. 자신과 타인이해하기 활동

- 자기소개하기

나는 ()을 좋아한다	나는 ()을 싫어한다
나는 ()을 믿는다	나는 ()을 생각한다

A4 용지를 나눠주고 각각 5가지 문장을 만들게 한 다음, 앞으로 나와 발표하게 한다. 이 활동을 통해 학생은 자신을 좀 더 깊게 생각하고 친구들이 좋아하고 싫어하고 생각하는 점을 공유하게 되면서 서로를 이해하게 된다.

다음 날부터 교사는 그 종이 중 몇 장을 선택해서 읽고 “누구의 소개일까?” 질문하고 답을 맞히게 한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친구와 느낌을 나누고 서로에 대해 보다 더 친밀한 감정과 고마움을 느끼게 된다.

• 서로 찾아가 칭찬해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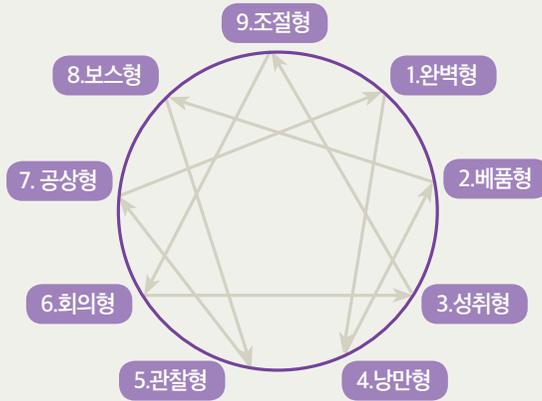
자신의 이름을 자음과 모음으로 나누고 그 자음과 모음이 같은 친구를 찾아가 친구에 대한 느낌이나 칭찬을 해주는 활동이다. 서로 흥분되고 기대되게 하면서 친구에게 좋은 점을 찾아주게 하는 활동으로 학년 초에 활용하면 좋다.

나. 심리검사

학생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양한 심리검사 방법을 이용하는 것도 좋다. 이는 학부모 상담을 진행할 때도 자료로서 유용하게 쓰인다. 또한 학생들은 자신이 어떤 성격이며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싶어 하는 욕구가 크다. 하지만 선부른 판단으로 상처를 줄 수 있으므로 조심스럽게 해석해서 활용하여야 한다.

· 아동문장완성검사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기 좋은 검사이지만 검사를 하고 나서는 반드시 개인 상담을 실시해야 한다.

· 에니어그램검사 자기 성격유형이 갖는 강점과 약점을 알고 나아갈 방향을 알게 해주는 검사로 고학년에 적합하다.



· MBTI 검사 학생들이 좋아하는 검사이고 자신의 성격과 타인의 성격을 알고 이해하기 좋은 활동이다.

· 학습성격검사 고학년 학생들이 하면 도움이 되는 검사이다. 자신의 학습성격은 어떠한지 자신의 진로를 진지하게 생각해 볼 시간을 갖게 해준다.

2. 비폭력 대화

아이를 사랑할 마음이 준비되고 아이의 성격을 이해했다면, 그 다음은 비폭력대화
로 교실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가. 비폭력대화법 익히기

- 1단계 관찰(observation) - 평가하지 않고 관찰하기 특정 상황에서 있는 그대로, 실제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관찰하고 사실을 서술하는 방법이다. 나한테 유익하든 그렇지 않든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평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이다.
- 2단계 느낌(feeling) - 해석 대신 느낌 어떤 행동을 보았을 때 어떻게 느끼는가를 말한다. 분노, 무서움, 기쁨, 즐거움, 짜증 등의 느낌을 표현하는 것이다. 비폭력대화는 실제 우리의 느낌을 표현하는 말과, 우리의 생각/평가/해석을 나타내는 말을 구별한다.
- 3단계 필요·욕구(need) - 느낌 뒤에 숨은 내 욕구 자신이 포착한 느낌이 내면의 어떤 욕구와 연결되지를 말한다.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우리의 느낌을 불러일으키는 자극이 될 수 있어도, 결코 우리 느낌의 원인은 아니다. 즉 내 욕구에 대한 좌절이 바로 느낌의 원인이라고 새롭게 인식하는 것이다.
- 4단계 요청·부탁(request) - 바람 또는 요구 대신 부탁 내 삶을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해주길 바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다. 막연하고 추상적이거나 모호한 말을 피하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말함으로써 긍정적인 행동을 부탁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 비폭력 대화법의 실제

학생의 행동으로 인해 화가 날 때, 상대방을 비난하는 대신 그 순간 자신이 가진 욕구를 인정하고 자신의 느낌을 전달하며 욕구를 부탁으로 표현한다. 또한 학생이 내게 화를 낼 때, 학생이 내뱉은 말에 똑같이 화를 내며 반응하는 대신 학생 내부의 욕구를 알아채고 그 욕구에 공감하며 연민으로 반응한다.

우리들 대부분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에는 익숙하지만 자신의 느낌

과 욕구를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에는 낯설어 한다. 비폭력 대화는 자신과 다른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에 귀 기울이게 함으로써 인간관계를 새로운 측면에서 보게 한다. 또한 교사가 비난하지 않고 비폭력대화를 생활에서 실시하면, 학생들은 자신들이 존중되고 있다는 걸 알고 학생들 스스로의 대화도 비폭력적으로 변한다.

IV. 편안하고 행복한 교실을 기대하며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무기는 입이 아니라 귀라고 한다. 우리는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 잘 알지만 익숙한 행동과 언어를 사용해버릴 때가 많다. 비폭력대화 방식이 우리가 평소 사용했던 방식과 달라 때로는 어색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가하고 충고하는 방식에 익숙해져 있고, 가르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 잘 가르치고 싶은 욕구가 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가진 대화방식이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바꿔 볼 필요가 있고 익숙해질 때까지 훈련을 해야 한다. 나는 교사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라고 말하고 싶다. 물론 교사가 할 일은 학생을 사랑하고 가르치는 것이다. 그러나 사랑을 서로 확인하지 못하고 가르치기만 한다면 탈이 나기 쉽다. 가르치는 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교사들도 많지만 이는 엄연히 다른 것이다. 아이가 충분히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충분히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주려면 말 뿐만이 아니라 마음을 전해야 한다. 아이들은 마음을 그대로 느끼기 때문이다.

올해 모든 선생님이 꺼려했던 우리 반 특별한 보석이 내 품에 쏙 들어오는 것을 나는 느낀다. 물론 그 친구의 부적절한 행동이 한 순간에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선생님이 자신을 사랑하고 있고, 자신이 이해받고 있음을 마음으로 느낀다면 아이 스스로 조금씩 변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비폭력대화는 큰 힘을 발휘할 것이고 나는 교사로서 뿌듯함과 행복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교사들이 학생과의 효과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행복한 교사생활을 하시며 사랑하는 아이들과 행복하시기 바란다. 그리고 우리의 편안하고 행복한 교실에서 아이들이 더 많은 꿈을 꾸고 더 많이 배워갔으면 좋겠다.

jheehyun@hanmail.net

평화로운 학급을 위한 회복적 생활교육



노용승
구산중학교 교사

왜 회복적 생활교육인가?

학교라는 곳은 다양한 이해와 욕구를 가진 조그마한 사회이다. 학교에서 갈등은 사회처럼 자주 발생하며 이런 갈등이 발생했을 때 아이들 간의 관계는 훼손된다. 하지만 갈등이 드러나는 상황을 학교에서는 관계의 훼손, 공동체의 훼손이 아닌 사안과 사건, 민원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으며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면 교사는 정해진 매뉴얼대로 처리하려고 한다. 하지만 학교는 사법기관이 아니라 교육기관이고 교사는 처벌권자가 아니라 학생들의 긍정적인 변화와 성장을 이끄는 촉진자이다. 법과 규칙은 사람과 사람사이의 도리를 다하지 않은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 아이들에게 사람의 도리를 다할 수 있도록 교육이 먼저 이루어져야지 학폭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나 교칙처럼 법과 규칙을 우선시 하지 않아야 한다.

응보적인 입장에서 처벌을 내리게 되면 아이는 자신의 긍정적인 정서가 침해되어 수치심이 발생하게 되며 자신의 수치심을 없애기 위해 결국 자신이 받은 응보적인 방식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다. 심각할 경우 자기를 공격하거나, 타인을 공격하는 쪽으로 행동하게 되고, 이런 행동이 다시 자신을 피해자로 만들거나, 자신보다 힘이 약한 상대에게 복수함으로써 폭력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된다. 처벌은 아이 내면의 긍정적인 변화를 통해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데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아이들은 앞에서 말한 수치심이 자극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밖에 반응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기존의 응



보적인 생활지도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이런 응보적인 생활지도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하는 시점이 온 것이다.

처벌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우 문제의 사건경위는 듣지만, 실제로 아이가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어떤 의도에서 이 아이가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처럼 의도를 묻지 않는다. 즉, 아이들의 문제 행동의 배경과 맥락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가해자에게만 초점을 맞추다보니 정작 피해를 입은 아이들은 그들의 필요와 요구가 소외될 수밖에 없다. 법과 규칙을 적용하여 가해학생은 처벌로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정작 피해 당사자의 필요와 요구가 다뤄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응보적인 지도방식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관계가 좋아지기보다는 관계가 악화된 상태로 남아 있고, 공동체가 파괴되는 근원적인 한계가 발생한다. 갈등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면 무엇 때문에 잘못되었고 어떤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자의 필요와 욕구를 충분히 듣고 도와줘야 하며, 가해학생은 자신의 행동에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직면하고 그 직면을 통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서 원래의 상태로 회복할 수 있는지를 스스로 알게 하여 스스로 잘못된 행동에 책임지는 책임의식을 배워 관계 회복과 학급 전체의 공동체를 회복하려는 데 노력하도록 도와줘야 한다.

학교는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경험하기 위한 작은 사회이다. 아이들에게 공동체 안에서 더불어 사는 경험을 체험하고, 갈등을 폭력이나 회피의 방법이 아닌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안전하고 평화로운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존중, 책임, 관계의 핵심 가치로 하는 회복적 생활교육이 필요하다.



회복적 생활교육의 실천과 후기

회복적 생활교육이란 잘못에 대한 처벌하는 것을 넘어서 학생과 공동체의 성장을 목표로 회복적 정의의 패러다임을 학교에서 실천하는 것이다. 회복적 정의를 학교에서 적용하는 경우 다양한 방식과 형태로 적용할 수 있다. 나는 한국평화교육훈련원에서 회복적 정의의 패러다임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받았는데 한국평화교육훈련원에서는 캐나다의 브렌다 모리슨 박사가 주창한대로 학교를 회복적 공동체를 세워가는 통합적 접근을 지향한다. 회복적 생활교육의 통합적 접근은 문제를 일으키는 소수의 문제 학생들에게 집중되는 생활지도에서 벗어나 평소 상호존중과 신뢰, 공감을 바탕으로 학급공동체 하부구조의 관계성과 공동체성 강화부터 시작하여, 사소한 문제가 발생하여 관계개선이 필요한 단계, 그리고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여 관계가 일시적 단절이 생기는 경우 그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공동체 재통합의 단계 등으로 통합적 이해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선 교실 차원에서 또래의 평화적인 압력을 강화하는 하부구조를 만들기 위해 신뢰서클, 존중의 약속, 평화감수성훈련 등을 하였다. 그리고 교실 내 만들어진 관계망이 손상되었을 때, 가벼운 문제나 갈등이 발생한 경우 회복적 질문을 통한 상담이나 회복적 반성문, 문제해결서클 등으로 다시 공동체에 속할 수 있도록 관계개선의 노력을 하였다.

하지만, 학급에서 발생하는 1~5%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 조정과정을 통한 관계회복이 필요하고, 회복적 대화모임으로 접근했다. 다음은 문제해결서클과 회복적 대화모임을 적용한 사례이다.

회복적 생활교육을 실천하면서 나와 아이들에게 나타난 두드러진 변화는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무엇을 우선으로 회복해야 하는지 (피해회복, 자발적 책임, 관계회복, 공동체회복, 정의회복) 알게 되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전에는 아이들이 친구에게 피해를 준 것은 자신이 받은 처벌로 모두 해결되었다고 생각했던 관점에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그리고 당사자와의 관계회복을 위한 책임과 손상된 학급공동체 회복을 위한 노력이 본인 스스로에게 있음을 직접 느끼고 있

회복적 생활교육이란
잘못에 대해 처벌하는 것을 넘어서
학생과 공동체의 성장을
목표로 회복적 정의의 패러다임을
학교에서 실천하는 것이다.



으며 잘못된 행동을 하기는 쉬우나 그 피해를 회복시키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동반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우리는 아이들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이길 기대한다. 하지만 아이들은 지금껏 자라오면서 “존중이나 배려, 평화가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서로 평화롭게 지낼 수 있을 것인가?” 진지하게 생각하고 고민해 본 적이 거의 없다. 더군다나 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이런 것들을 배울 기회를 제공해 주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할 경우 처벌은 하지만 그 순간이 아이들의 삶에 있어서 존중, 책임, 평화 등의 소중한 가치를 배울 수 있음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다.

우리들의 학급공동체는 지금 '위기'다. 이 '위기'라는 뜻은 그냥 두면 '위험'하지만, 제대로 관리하거나 해결되면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의미다. 회복적 생활교육이야말로 학급공동체의 위기를 성장과 긍정적인 변화의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며 제가 회복적 생활교육을 실천하면서 늘 마음에 두고 있는 글귀 “교실에서 한 아이를 대하는 방식은 세상을 바꾸는 '평화구축'의 일이다.”(회복적 생활교육 학급운영 가이드북 卍)를 전해드리는 것으로 이야기를 마무리 할까 한다.

ysrho1@naver.com

지금 기분이 어때?



고정택
삼천포중학교 교사

감정코칭을 활용한 상담

새 학기를 앞둔 봄 방학 중 어느 날 오전, 신입생 학부모님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같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1년 선배 형들이 아들을 SNS 대화방에 초대해서 '중학교 입학하면 선배에게 인사를 잘하라', '선배한테 잘하라'는 등 욕설이 섞인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다고 했다. 혹시나 아들이 중학교에 진학한 후 힘들어할까봐 걱정이라고 했다. 그래서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지도를 해주면 좋겠다는 부탁을 받았다. 학부모님께서 재학생들이 누구인지 말씀해주셔서 그 학생들에게 전화를 했다.



(부드러운 톤으로 방학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곧 중학교 2학년이 되는 기분이 어떤지 등의 안부와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눈 뒤 대화를 시작했다.)

교사 혹시 너희들 대화방에서 신입생 후배를 초대해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지?

인수 예, 있습니다. 친구 민성이가 저를 초대해서 욕 좀하면서 겁을 좀 주라고 해서 그런 적이 있어요.

교사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인수 선생님,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선생님은 어떻게 아셨어요?

교사 (부드러운 톤으로 내가 알게 된 과정을 설명했다)
인수야, 대화방에 들어가서 어떤 글을 올렸는지 선생님이 물어 봐도 되니?

- 인수** 예. 입학하면 선배들에게 인사 잘하라고 했어요.
- 교사** 음... 선배들에게 인사 잘하라고 했구나. 또 다른 내용은 없었니?
- 인수** 겁 좀 줄려고 욕도 좀 했어요.
- 교사** 욕도 좀 했구나.
- 교사** 그랬더니 신입생은 어떤 반응을 보였어?
- 인수** 약간 찌는 것 같았어요.
- 교사** 겁을 좀 먹었던 것 같고, 무서웠겠구나?
- 인수** 예, 맞아요.
- 교사** 그때 인수 기분은 어땠어?
- 인수**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겁이 좀 났어요.
그래서 얼마 안 있다가 대화방을 빠져 나왔어요.
- 교사** 그랬구나. 겁이 나서 대화방을 빠져 나왔구나.
- 인수** 예, 그랬어요. 그런데 선생님. 학교 가면 우리 처벌 받아요?
선생님 말고 다른 선생님도 알고 계세요?
- 교사** 인수는 걱정이 조금 되나 보구나? 아직 다른 선생님은 모르고 계신단다.
지금은 처벌 얘기할 때가 아닌 것 같아.
선생님이 너희를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란다.
- 인수** 선생님. 그럼 우리 어떡하면 되죠?
- 교사** 인수는 어떻게 하고 싶어?
- 인수** 사과하면 될까요?
- 교사** 사과할 수 있겠니? 어떤 방법으로 사과할 수 있겠어?
- 인수** 지금이라도 대화방에 가서 잘못했다고 사과 글 올리면 될까요?
- 교사** 그렇게 할 수 있겠니?
- 인수** 예, 할 수 있어요. 글 올리고 화면을 캡처 해서 보내드릴까요?
- 교사** 나는 인수를 믿기에 화면을 캡처 해서까지 보낼 필요는 없다.
진심어린 사과의 글을 올리고
인수가 이런 일이 또 생기지 않도록 하면 된단다.
- 인수** 예 선생님.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사과 글을 올리고 오겠습니다. 민성이랑 같이 할까요?

교사 그렇게 하던 더 좋겠지?
인수 민성이랑 같이 글 올리고 올게요.
교사 응~ 그래. 조금 있다가 다시 통화 하자.

몇 분 후 사과 글을 올린 채팅방 화면 캡처한 사진이 메시지로 왔다.
 그리고 대화는 이어졌다.

인수 선생님 사과 했어요. 엄청 길게 썼어요.
 강 애들끼리 장난 좀 쳐보려 했던 건데... 죄송합니다.

교사 그래, 사과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멋진 친구구나.
 인수는 정말 멋지다.

인수 고맙습니다, 선생님.

교사 인수야. 선생님이 몇 가지 더 얘기해도 되겠니?

인수 예, 선생님.

교사 커뮤니케이션의 효과에서 말로 전달되는 것은 7%밖에 안 된 단다.
 하물며 글로써 의사를 전달한다고 할 때, 내 마음이 얼마나 전달 될 것 같니?

인수 거의 전달이 안 된다고 봐야겠네요.

교사 거의 전달 안 된다고 봐야지. 그래서 글로써 마음 표현은 어렵다고 봐.
 글을 읽는 사람의 기분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도 하지.
 나는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내 나름의 방법을 쓰고 있단다.

인수 어떻게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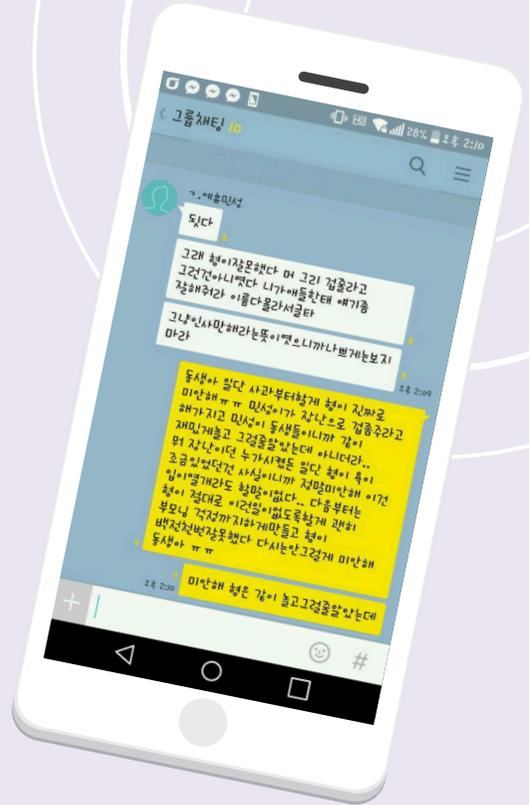
교사 다들 알고 있는 것이겠지만,
 내가 쓴 글 뒤에 이런 웃음 이모티콘(^^)을 붙인단다.
 이렇게 하면 내 기분을 조금이라도 전달할 수 있고, 오해를 막을 수 있단다.

인수 아~ 그렇군요. 선생님도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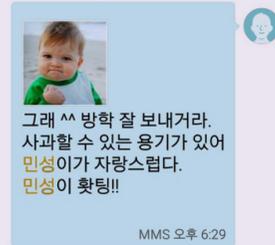
교사 그럼, 있었지. 그래서 이런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했단다.

인수 선생님도 이런 일이 있었구나.

교사 인수야. 지금 기분은 어때?



- 인수** 마음이 흥분해졌어요. 그래도 걱정은 돼요.
인성부에 계신 선생님이 아시면 처벌하지 않을까요?
- 교사** 혹시 알게 되면 우리 인수 입장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문제가 확대 되지 않도록 노력할게.
- 인수** 선생님, 고맙습니다.
- 교사** 인수야, 남은 방학기간 동안
마음 편하게 보내고 개학 때
밝은 얼굴로 만나자~
- 인수** 선생님도 방학 잘 보내세요~



대화가 끝난 후 인수의 친구 민성과 감정코칭 방식으로 대화를 하여 불안감을 해소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감정코칭이란?

감정코칭의 핵심은 매우 간단하다.

- 감정은 삶의 자연스런 일부이다.
- 아이의 감정(기분)을 꾸짖지 마라.
- 하지만 행동은 한계를 지어주어야 한다.

즉, 어른이 아이의 감정을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주되, 이것을 표현하는 방식과 행동에는 어느 정도 제한을 두고, 바람직한 방법으로 선도해 주는 것이다.

구체적인 감정코칭 방법은 5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 1단계: 아이의 감정을 포착한다.
- 2단계: 좋은 기회로 여긴다.
- 3단계: 아이의 감정을 들어주고 공감한다.
- 4단계: 감정을 표현하도록 도와준다.
- 5단계: 바람직한 행동으로 선도한다.



감정코칭 1단계 : 아이의 감정을 포착한다.

행동보다 감정을 먼저 읽어야 한다. 어른들은 아이의 마음 속에 있는 감정을 놓치고 눈에 보이는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 먼저 행동에 대해 지적하는 실수를 흔히 한다. 기본적인 감정은 누구라도 잘 포착하지만 이차적인 감정은 쉽게 판단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감정을 잘 포착하기 위해서 단정을 짓기 전에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기분이 어때?”라고 짤막하게 질문할 수 있다. 답이 없거나 “나도 모르겠어요.”라고 대답하면 “말하기 싫은 모양이다”라고 단정 짓기 전에 여러 감정이 섞여 있거나 본인이 감정을 표현하는 데에 익숙하지 않아 머뭇거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 조금 기다리면 아이가 대부분 어떠한 말이라도 한마디는 할 것이다.

감정코칭 2단계 : 좋은 기회로 삼기

아이가 감정을 보일 때를 짜증나고 회피하거나 버릇을 고쳐주기 위한 귀찮은 일거리로 생각하지 않고, 감정코칭을 통해 아이를 성숙할 수 있도록 돕는 기회로 반기라는 뜻이다. 또한, 아이에게 관심을 적극적으로 보이고 아이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라는 뜻이기도 하다. 아이가 강한 감정을 보일수록 더 좋은 기회로 여겨야 한다. 우리가 아이에게 분석하고 따지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검사’ 역할로 대하면 부정적 감정이 증폭된다. 가급적 대변해주고, 방어해주고, 보호해주는 ‘변호사’ 같이 한 편이 되어주는 역할로 다가가면 아이는 마음의 문을 더 쉽게 열 것이다.

감정코칭 3단계 : 아이의 감정을 들어주고 공감, 경청한다.

이 단계에서 비로소 교사가 학생에게 능동적으로 개입하면서 긍정적 관계를 만든다. 개입의 방법이 소통이며, 소통의 핵심은 경청과 공감이다. 즉, 감정코칭 3단계는 코칭의 기본 도구인 대화와 소통에 대한 방법론이다.

- 그랬겠네. 또는 고개를 끄덕끄덕.(수용, 경청)
- 정말 힘들었겠네, 화났겠네, 슬펐겠네, 억울했겠네, 창피했겠네....(공감)
- 그리고 싶구나.(공감, 이해)
- 정말 슬픈 일이야.(공감)
- 네가 짜증이 날만도 하다.(공감)
- 그 사람 정말 고약하네.(이해)

감정코칭 4단계 : 감정에 이름 붙이기와 감정을 표현하도록 도와주기

불확실한 감정을 구체화하거나 명료화해서 이후로 논의가 가능하도록 한다.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돕는다. 특히 어린아이와 사춘기 아이들은 감정의 언어를 구사하는 능력이 낮아서 다양한 감정을 획일적으로 “짜증나요!, 열 받아요!”로 표현한다. 마치 앞에 놓인 꽃이 오색찬란한 색인데 “어두운 색이에요, 밝은 색이에요” 등으로 구체적 표현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며, 다른 이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 이름이 생겨 최소한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 “그런 것이구나!”를 알게 되는 순간, 마음이 좀 놓이고 그 감정에 혼란스러워하거나 집착하는 것에 대한 대처법에 조금 더 신경을 쓸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어른들은 아이의 마음 속에 있는
 감정을 놓치고 눈에 보이는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 먼저 행동에 대해
 지적하는 실수를 흔히 한다



감정코칭 5단계 : 바람직한 행동으로 선도한다.

바람직한 행동으로 감정을 표출하고 해소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선도'한다고 했다. 즉, 해결책을 먼저 알려주거나 지시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제안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는 뜻이다. 효과적인 방법은 아래와 같은 질문으로 답을 유도하는 것이다.

- 너는 어떻게 하면 좋겠니?
- 선생님이 한번 제안해 볼까?
- 이러이러한 방법 중에서 너는 어떤 게 나올 것 같아?
- 그러면 기분이 어떨까?

감정코칭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아이에 대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아이의 장점을 통해 희망을 보면서 진정으로 아이를 믿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자세다.

kotaek@hanmail.net

참고문헌

존 가트먼, 최성애, 조벽(2011), 내 아이를 위한 감정코칭, 한국경제신문
최성애, 조벽(2013), 청소년 감정코칭, 해냄

064 생생교육

KOSETA 발표를 마치며

전상윤 | 김해대청고등학교 교사

60여 년 만에 품은 중학교 졸업장

강재영 | 경원중학교 교사

076 우리 학교는

사랑의 씨앗을 뿌려

행복의 열매를 맺다

윤양수 | 의령유치원 원장

학교의 문턱을 낮춰

교육공동체와 소통하다

박진우 | 가좌초등학교 교장

별을 쏘다, 악양들빛 하늘에

주옥경 | 악양중학교 교사

2017, Spring story
Education
Gyeongnam

제30회 KOSETA 발표를 마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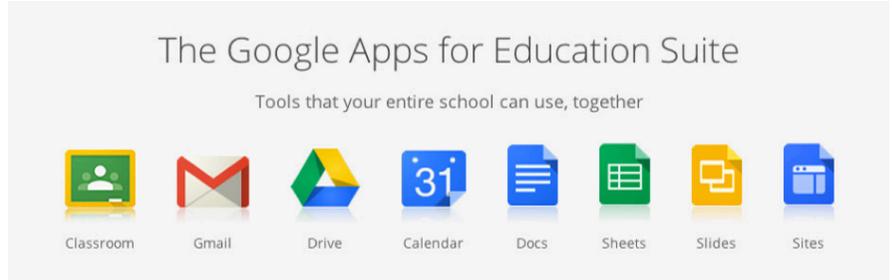
전상운
김해대청고등학교 교사

발견, 학습자 중심의 구글 클래스룸

인류가 생활의 편의를 위한 새로운 도구들을 계속 찾아왔듯이 영어교사로서 바쁜 학교업무 속에서도 수업준비에 대한 부담, 학생들의 동기부여, 새로운 교수법에 대한 갈증 등과 같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웹 기반 도구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다. 그러던 중에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는 공간에서도 문서작업이 가능한 교육용 구글 어플리케이션(Google Drive, Docs, Slides, Sheets, Form 등)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이 모든 구글앱들을 추가적인 소프트웨어의 설치 없이 한 공간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가상교실 ‘구글 클래스룸’을 발견하게 되었다. 구글 클래스룸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교사가 수업자료를 만들고, 배포하고, 채점하는 과정을 단순화시킨 교육용 애플리케이션으로 비영리 교육단체는 무료로 사용 가능할 뿐만 아니라 담당교사에게는 무제한 클라우드 저장 공간이 제공되는 장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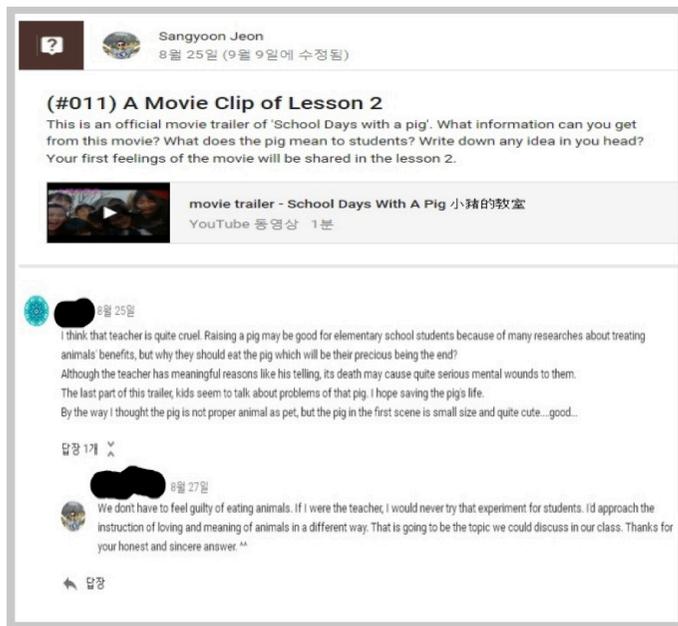
기본적인 구글 클래스룸의 운영 목표는 유인물이 제공되지 않는 ‘종이 없는 교실’ 실현, 수업 이전에 실제 수업에서 다루게 될 주요 단어, 문장구조 및 어법 등을 퀴즈로 제시하여 학생들에게 예습을 유도하고, 상호댓글을 통한 학급 구성원들 간의 왕성한 의사소통을 이끌어 내는 것이다.





구글 클래스룸을 활용한 교실 수업

구글 앱을 기반으로 한 구글 클래스룸이 실제 우리나라 고등학교 영어 교실에서 어느 정도까지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까 하는 개인적인 호기심에서 출발하였다. 2016년 1학기에 구글 클래스룸 학교 사용 허가를 마치고 수업 적용을 구상하던 중 제 30회 한국중등영어교육학술포럼을 위한 경남 발표자 공모를 접하게 되었다. ‘내 개인적인 연구에 대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피드백을 받을 좋은 기회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에 겁도 없이 ‘구글 클래스룸을 활용한 수업지도안’을 제출하였고 운 좋게도 경남대표로 발탁되었다. 그 결과 2학기 수업은 구글 클래스룸이라는 가상교실에서 영작, 번역, 유튜브 활용, 역할극, 수업노트 등의 다양한 학생중심활동을 전개하여 새롭고 흥미로운 영어수업을 시도하였다.



▲ 교사가 올린 유튜브 동영상에 대한 학생의 댓글과 교사의 피드백

과 본문정리 p141- [redacted]

New world

1. Panoramic recreation- 파노라마식 재현
2. Surgeon-외과 의사
3. Sensory-감각의
4. Perception-인지
5. Operation-수술
6. As time goes on-시간이 지남에 따라
7. Ubiquitous technology-아주 흔한 기술

AR could aid ^{된다} everyday living ^{일상생활} in other fields ^{분야} as well ^{또한}.

AR은 다른 분야에서도 일상생활을 도와줄 수 있다.

In education, AR could be used to view a panoramic recreation ^{재현} of a historical event(which was) superimposed on its real-time background.

*be used to 동사원형:~하는 데 사용되다
 *used to 동사원형: ~을 하곤 했었다
 *be used to v-ing:~에 익숙하다
 *superimposed는 과거분사로, which was가 생략되어 event를 수식한다.

교육에서(교육 분야에서), AR은 실시간 배경 위에 겹쳐진 역사적인 사건의 파노라마식 재현을 보는 데 사용될 수 있다.

AR could be used in medicine to give a surgeon ^{인정목적어} a better sensory perception ^{직접목적어} of the patient's body during an operation.

오로 9:40 12월 8일 댓글

그럼 예는 to 부장사의 부사적 용법인가? ~하기 위해서

오로 9:46 12월 8일 댓글

그렇지
'수술 중에 환자에 대한 더 나은 감각적인 인지를 주기 위해 쓰일 수 있다'라고 해석 되니까
'노부장사의 부사적 용법의 목적'이 되겠네

오로 9:39 12월 8일 댓글

= AR could be used in medicine to give a better sensory perception of the patient's body to a surgeon during an operation (4형식->3형식)

오로 10:07 12월 8일 댓글

4형식 문장을 3형식으로 바꿀 때는 s+v+직접목적어+(동사다다 정해진 전치사. 여기서는 give가 동사이므로 to가 직접)+간접목적어! 그러니까 맞는 문장이야

오로 11:06 어제 댓글

더 나은 감각적인 인지가 무엇을 뜻하는 거야? 예시같은건 없니?

▲ 한 학생이 자신이 담당한 교과서 부분을 정리·공유 후 학생들의 질문에 답변해 줌

구글 클래스룸을 활용한 수업은 추가적인 소프트웨어와 USB 없이 무료로 설치가 가능하고 사용이 쉬우며 유인물을 준비할 필요가 없어 교사들의 수업준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학생들로 하여금 실제 수업 전에 주어진 퀴즈를 스스로 풀어보게 함으로써 예습을 통한 학습자 중심의 학습태도를 신장시킬 수 있고 댓글 나눔 방식의 수업은 학급 구성원들 간의 이상적인 의사소통을 이끌어 낼 수 있다.

하지만 학생들에게는 교실 밖에서도 교사와 소통할 수 있는 자유로움이 제공되지만 교사는 책임감을 가지고 수업자료를 미리 올려야 하고 학생들의 댓글에 가능한 빨리 답해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학생들의 자율적인 참여가 평가와 연결되어 있지 않아 모든 학생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평가에 얽매이지 않고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을 동료교사들과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

제30회 한국중등영어교육 학술포럼 참가

2017년 1월 23~24일 양일간에 걸쳐 충청남도 예산에서 열린 제30회 한국중등영어교육 학술포럼 첫째 날, 아침 일찍부터 김해외고 강현 선생님께서 직접 운전을 해

주셔서 불편함 없이 행사장까지 이동할 수 있었고 차 안에서 함께 수업방법 개선이나 교육문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편하게 나누면서 발표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었다. 목적인 증남 예산에 위치한 리솜스파캐슬에 도착하여라운지로 들어서니 벌써 행사진행요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막상 500명 이상을 수용하는 본 연회장을 마주하니 온몸으로 발표에 대한 압박감이 느껴졌지만 주변사람들에게는 “돌잔치나 할 정도의 작은 무대에서 제 발표가 빛을 발하지 못할 것 같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스스로에게 잘할 수 있다는 최면을 걸었다.

경남영어교과연구회 회원들과 저녁식사를 간단히 마치고 일찍 숙소에 들어와 최고의 컨디션으로 발표에 임하려 하였다. 그러나 어디서든 바닥에 누운 뒤 5초 뒤면 꿈나라로 들어갔던 나의 수면 역사에 큰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침대에 누워서 이리 저리 뒤척였지만 잠은 오지 않고 어디선가 들리는 삼장법사의 주문으로 알 수 없는 두통만이 찾아와 결국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잠이 들었고 3시간 정도 밖에 잠을 자지 못했다. 두 번째 발표라 대기석에 앉아 기다리면서 첫 번째 발표자의 발표를 지켜보아야만 했다. 인천○○고등학교에 근무하시는 포스 넘치고 멋진 외모의 남자 선생님이셨는데, 학생들과 함께한 수준 높은 프로젝트를 고급 영어로 구사하는 모습에 살짝 압도당하기도 했다. 하지만 내 자신이 무대 위에서는 알 수 없는 에너지 증폭기에 의해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걸 많이 경험했었기 때문에 사회자가 내 이름을 불렀을 때 큰 무대를 즐길 줄 아는 나의 모습을 이미지로 떠올리면서 안정을 되찾으려고 하였다. 무대 중앙에 올라 발표를 시작하면서 앞줄부터 멀리 뒤쪽에 앉은 관중들의 시선이 느껴졌고 컴퓨터 회로가 하나씩 연결되듯 우리만의 새로운 매트릭스가 형성되는 느낌이 들었다.

이에 탄력을 받아 큰 사고 없이 무사히 발표는 마쳤지만, 과연 준비한 내용이 잘 전달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겼다. 휴식시간에 나의 발표내용에 관심을 보이는 다른 지역 교사들의 문의에 성실히 답해 주었고 경남영어교과 회원들로부터 많은 격려를 받았다. 개인적으로 영어교사로서 전국적인 연구발표대회에 경상남도 대표로 참가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가문의 큰 영광이라고 생각했고 다른 지역 발표자들의 우수한 사례발표를 지켜보며 수상은 크게 기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1등상에 내 이름이 호명되었고 무대에 올라가는 순간에도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얼떨떨한 기분으로 기념촬영을 끝내고 행사요원들에게 인사를 건넨 후 집으로 돌아오는 순간에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에 사로잡혔고 혹시나 주최 측에서 다시 상장을 뺏어갈 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마음도 있었다. 발표 인사말로 “이번 발표가 내 인생 2막의 첫걸음이 될지도 모른다”(I'm going to make a presentation hoping that this moment may be the first step for the second chapter of my life)라고 했는데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이 문구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앞으로의 과제

대회가 끝난 뒤 제일 큰 변화는 교육감님께서 직접 불러주셔서 격려해 주셨고, 지인들로부터 인터넷 기사에 대해 축하인사를 받고 신문 및 잡지사와의 인터뷰 요청에 응답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지만, 분명 이것은 일시적인 거품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1등 수상 후 경남영어교과연구회 회원들과 함께

1위 수상이 나에게 부여한 과제는 지난 학기에 걸쳐서 이루어진 구글 클래스룸 활용수업 관련 안내사항이나 개선사항들을 전국의 관심 있는 교사들에게 많이 알리고,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교사들과는 자료 및 수업공유를 통해서 더 나은 수업을 만들도록 노력하는 것이라고 여겨진다. 발표가 끝나면 모든 문제들이 다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다른 교사들에게 안내를 해야 할지, 어떻게 좀 더 개선된 수업모형을 새 학기에 새로운 학생들과 만들어야 할지 등의 새로운 고민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다.

분명 이것은 교사로서 실험적인 수업 연구를 계속 하게 만들어 줄 큰 원동력이 될 거라고 생각된다. 이렇게 수업공유를 통해 파악된 개선사항을 정리해서 구글 본사에 건의함으로써 구글 클래스룸과 관련된 앱들이 한국 교실환경에 최적화 되도록 목소리를 내고 싶다. 이런 이유로 다가오는 영국 세미나에서 이미 구글 클래스룸을 사용하고 있는 전 세계 영어교사들과의 만남이 더욱더 기대된다.

KOSETA

60여 년 만에 품은 중학교 졸업장



강재영
경원중학교 교사

지난 2월 12일 일요일, 창원의 경원중학교 교정에서는 특별한 졸업장 수여식이 있었다. 졸업생 중 최고령자인 김○○학생(80세)은 “실로 60여 년 만에 중학교 졸업장을 받게 되었다”며 감격스러워 하셨다. 2014년 개교한 경원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는 저마다 갖가지 사연으로 배움을 놓친 학생들을 위한 정규 공립중학교로, 270여명의 늦깎이 학생들의 배움터이며 재학생들의 평균 연령은 63세이다. 학생들은 지난 3년 동안 하루 4시간 주 4일의 사이버 학습과 한 달에 두 번씩 일요일 출석 수업을 병행하며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고 꿈속에서 그리보던 중학교 졸업장을 품속에 안게 되었다.

2014년 당시 입학생은 90명이었으나, 이사로 인한 전학, 조기 졸업 등을 제외하고 88명이 졸업하였으며, 졸업생 87명이 60대 이상이다. 졸업생 중 80여명이 인근의 마산고 및 진주고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로 진학하였다. 다음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늦깎이 학생들과 고군분투한 교학상장(敎學相長)의 기록이다.



늦깎이 학생들과의 첫 만남

2014년 3월 첫째 주 일요일, 방송통신중학교 신입생들의 담임을 맡게 되어 사전 교육을 위한 예비소집에서 학생들과 첫 만남을 가졌다. 4대 1의 경쟁률을 뚫었다는 방송중학교 개교 원년의 신입생들은 긴장과 기대감으로 상기되어 있었다. 학교에서의 배움을 가볍게 여기는 세태다 보니 ‘아니, 이 분들은 왜? 이 연세에 여기까지 오셨을까? 그것도 거제, 양산 등등 먼 곳에서...’라는 의문이 들었다. 마침 담임시간이 있어 자기소개 시간을 가져 보았다. 그 중 인상적인 몇 가지를 소개해 본다.

나는 산골 마을의 가난한 부모를 둔 팔남매 중 맏이었다.
동생들을 돌봐야 해서 초등학교 졸업 후 진학을 포기했다. 못 배운 것에 대한 미련이 평생 동안 남아 있던 차에 TV에서 방송통신중학교 모집 광고를 보고 용기를 내어 이 자리에 왔다. 가슴이 뛰어서 잠도 설쳤다. 이런 기회를 준 교육청과 학교가 무척 고맙다. 열심히 공부해서 고등학교에도 진학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신입생 ○○○

방송통신중학교에 다니게 되었다는 것을 자식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자녀들이 아버지가 국졸이라는 것을 아직 모른다.
입학식 전에 솔직히 털어놓고 축하와 격려를 받고 싶다. 신입생 ○○○

창원에서 정비 공업사를 운영하고 있다. 중학교 졸업장만 없을 뿐이지
나름 사회에서 인정받는 삶을 살았다. 이 자리에 남자들은 몇 명 되지 않아
사실 스스로 많이 부끄러웠다. 학력만 나오면 움츠리고 뚫뚫하지 못했던 과거의
나를 지우고 당당하게 살고 싶다. 중학교 졸업장을 꼭 받고 싶다. 신입생 ○○○

대부분이 가난했던 시절에 더 찢어지는 가난으로, 여학생의 경우는 빠듯한 살림에 오빠나 남동생에게 공부의 기회를 양보하느라, 교복을 차려 입고 가방을 든 동네 친구들을 숨어서 지켜보며 눈물을 삼켰던 아픔을 털어 놓으셨다.

우리 반 30명의 어르신 학생들은 각자의 사연을 풀어 놓으며, 학력 콤플렉스로 평생을 살아야 했던 서로의 상처를 공감하면서 어깨를 토닥였다. 교과 수업과 담임을 맡은 나는 자기소개를 이어가는 동안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분들을 만나야 하는지 대강의 감을 잡을 수 있었다. 그리고 이 분들이 왜 여기까지 오셨는지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내가 미처 헤아리지 못했던 앞선 세대의 삶을 비로소 관심 있게 들여다 볼 수 있게 되었다. 정현중 시인의 시 구절처럼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함께, 한 사람의 일생이 왔다. 이 벽찬 낯선 경험 앞에서 나의 다짐은 “이분들의 고단했던 일생을 존중하자”였다. 나의 화두는 “배움에 대한 희망을 품은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 도와드릴 수 있을까?”였다.

방송통신중학교 교사들의 고민

방송통신중학교의 학습은 대부분이 원격교육시스템에 접속하여 전 과목을 수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1년에 23~24일 정도 출석수업을 위해 등교를 한다. 정규 중학교의 교육과정과 같은 편제로 1일 40분씩 6교시까지 시간표를 운영하며 창의적 체험활동의 네 가지 영역도 편성되어 있다. 1학기에는 체육 대회와 2학기는 현장체험학습, 한 학기에 한 번씩 학기말 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방학 기간은 없다. 10월에는 전국 20여개의 방송통신중학교의 합창단이 모여 경연을 벌이는 큰 행사를 갖기도 한다. 이렇듯 출석 수업일에는 행사활동과 평가일을 제외하면 교과에 배당되는 시간은 몇 시간이 되지 않는다. 방송통신중학교 수업을 맡게 된 교사는 교과에 방대한 내용을 수십 년 동안의 학습단절을 겪은 학생들에게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 고민을 했고 동료들과 열띤 토론을 하였다. 많은 시행착오와 성찰을 거듭할 수밖에 없었다. 방송중학교 첫 해 수업에서는 의욕만 앞세워 여러 갈래의 문학작품을 함께 읽었고 맞춤법을 비롯한 문법 수업도 하였다. 식사 후 5, 6교시의 수업에도 한 분도 졸지 않고 교사의



강의를 경청했으며, 준비한 내용을 다 마치지 못해 쉬는 시간까지 수업을 해도 싫은 내색을 하지 않으셨다. 심지어 수업을 마치면 박수까지 치신다. 이런 환대를 받으며 스스로 만족스런 마음에 행복해했다.

“주중에 아이들에게 받은 상처, 주말에 어르신 학생들로부터 위로 받자” 교사들끼리 이런 얘기를 나누기도 하였다. 그러나 2주 후 다음 출석 수업 일에 지난 시간에 한 중요한 내용에 대해 복습을 하면 언제나 처음 들었다는 듯이 열심히 받아 적으신다. ‘그 연세에 어떻게 2주전의 내용을 기억하시겠나?’며 이해는 하지만, 맥이 풀리고 힘이 빠져 나가는 듯 했다. 다음 해에는 교과 내용 중 어르신 학생들에게 필요한 내용만 추려 내고 나머지는 과감하게 버리고 교과를 단순하게 재구성하였다.

학생들이 만든 졸업문집

턱턱지 않은 출석 수업일의 국어 시간에 시와 소설을 읽으면서 인간과 세계를 만났다. 사람살이의 허위와 진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자연스럽게 각자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았다. 그 중에서 어렵게 짬을 내어 시도한 1년에 한 편씩의 글쓰기 시간은 참으로 소중했으며 그 글들을 모아 졸업식 즈음에 졸업문집을 발간했다. 1학년 때는 ‘추석’을 글감으로 어린 시절로 돌아 가 보는 시간을 가졌다. 내심 백석의 ‘여우난골죽’의 왁자지껄한 명절의 풍요로움을 기대했으나, ‘어린 시절의 우울했던 추석’도 몇 편 나와 당황했던 기억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글들에서 늘 가난하고 부족했던 시절, 새 옷과 새 신발을 가슴에 안은 채 추석을 기다리는 소년소녀의 천진한 마음이 느껴졌다. 다음은 학생의 글이다.

나의 고향은 시골 골짜기. 어린 시절, 우리 집은 문종이를 만드는 집이었다.
백부님과 사촌 오빠가 일주일 동안 내내 정성들여 문종이를 만들었다.
그러면 할아버지께서 오일 장 날에 나가셔서 문종이를 팔아 돈을 마련해 오셨다.
그 돈의 일부로 추석 음식을 장만하였다. 또 그 돈의 나머지를 가지고 사촌 오빠, 언니,
나, 동생들의 신발과 옷을 사 가지고 오시면 우리는 서로 먼저 가지려고 했다.
추석은 나에게서 아픈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 부모님 생각, 다른 아이들은 어머니,
아버지와 외가에 간다고 자랑했지만 항상 난 마당 귀퉁이에서 울었던 기억 뿐.
세월이 흐른 지금, 아련한 추억으로 남았다. 1학년 강○○

2학년 때는 그리운 사람, 소중한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를 쓰게 했다. 역시 모든 이
의 마음의 고향인 어머니에게 쓴 글이 가장 많았다. 아직도 이별과 상실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해 아픔이 묵직하게 느껴지는 글도 있었다.

아들아, 너무 보고 싶구나. 10분이라도 너를 만나 안아 보면 얼마나 좋을꼬.
아들, 하늘나라에서 잘 지내고 있지? 너를 생각하면 내 마음이 너무 아프구나.
이 엄마는 늦게나마 방송통신중학교에 다니면서 너에게 편지를 쓴다.
우리 아들 대학 다닐 때 너에게 맛있는 음식을 따뜻하게 못해준 것이 너무 후회되고
한으로 남아 있구나. 너 알다시피 아빠가 몸이 편치 못하고 엄마까지 아파서
그 때 형편이 어려웠지 않았니? 벌써 13년 전이 되었구나.
아들아, 너의 친구들도 이제는 아무도 오지 않는다.
서로 사는 것이 바쁘기 때문이겠지. 그렇게 서운하게는 생각하지 않으려고 한다.
우리 아들 생각하니 눈물이 핑 도는구나. 아들아 너무 보고 싶다.
이 엄마도 잘 지내니 아무 걱정 하지 말거라. 아들 사랑해
2015년 8월 23일

너를 한시도 잊은 적이 없는 엄마가

3학년 국어 시간에는 “나는 용서한다. 너를...” 이라는 첫 문장을 던져 놓고 용서하기 어려웠던 사건이나 기억을 쓰게 했다. 여기저기서 쓰기 힘들다는 학생들의 탄식과 원망이 터져 나와 잠시 흔들리기도 했지만, 곳곳이 버텨보았다. 몇 분이 채 지나지 않아 학생들은 첫 문장을 쓰자마자 무섭게 몰입했다. 글쓰기를 하는 동안, 잊고 싶었던 과거가 생생하게 우리 앞에 펼쳐졌다. 그 시간을 통해 배운 것은 글쓰기가 가진 마법과도 같은 힘이었다.

부모님, 용서합니다.

지금으로부터 50여 년 전 나의 중학교 진학문제로 부모님은 다투셨다.
위로 오빠, 아래로 동생 넷 때문에 결국 나는 중학교 진학의 꿈을 다음 해로 다음 해로
자꾸만 미루어야 했었고 벌써 50년의 세월이 지나갔다.
어머니는 40년 전에 아버지는 몇 달 전에 세상을 떠나셨다.
이젠 내 스스로 중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까지 갈 목표를 세우고 있다.
평생을 나를 장님으로 살게 했다고 원망했던 부모님. 이제 걱정 마시고 편히 쉬십시오.

지나고 보니 지금의 중학생도 나쁘지 않아요. 비슷한 친구들과 많은 공유도 하고
삶의 의미와 공부의 참 맛을 느낍니다. 저를 공부 못 시킨 대가로 다른 형제들보다
삼백만원을 더 주고 돌아가신 아버지, 그동안 마음 아프게 했던 말들
용서해주시고 편히 쉬시길 바랍니다.

3학년 ○○○

새로운 도전을 위한 시작

졸업생 김○○학생(69세)은 “b와 d를 구별 못했던 늙은 학생들이 이제 제법 영어를 구사할 수 있게 되었다. 나의 글이 실린 문집도 졸업 선물로 받았다. 힘든 일이 많았지만 늦게나마 학업을 계속할 수 있어서 크나큰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방송통신고 진학 후에도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까지 도전해 보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3년 동안 정든 교정을 뒤로 하고 떠났다. 늦깎이 학생들의 배움에 대한 열정과 새로운 꿈과 목표를 가지고 도전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며 그 분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운 것은 오히려 나였다. 다시 할 수 없을 것 같은 소중한 경험을 함께 한 방송통신중학교 학생들을 언제나 응원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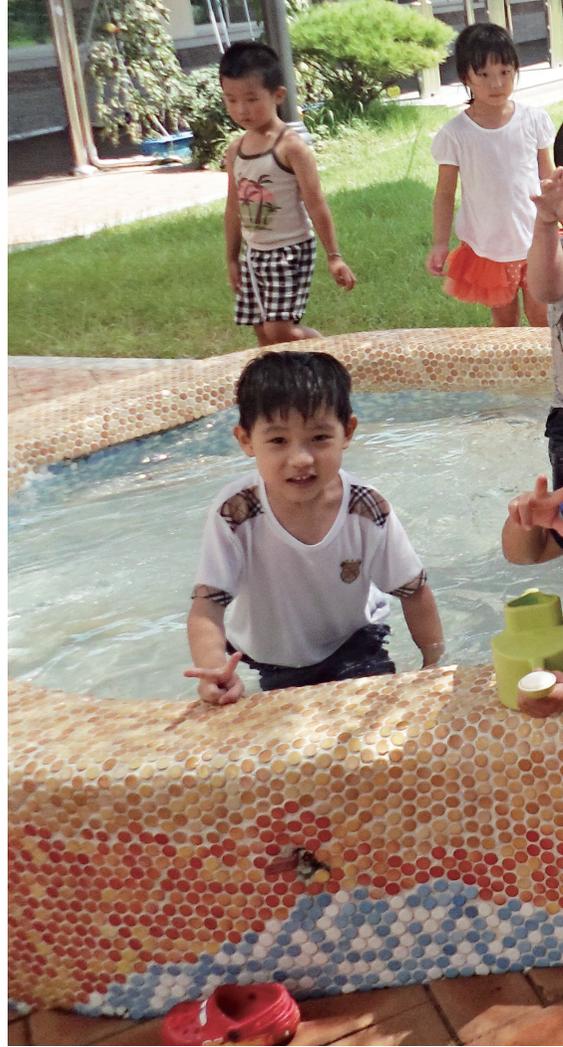
kangtch@hanmail.net

사랑의 씨앗을 뿌려 행복의 열매를 맺다

전국 50대 교육과정 우수 유치원 의령유치원



윤양수
의령유치원 원장



의령유치원이 교육부가 주관한 '제2회 전국 50대 교육과정 우수 유치원'으로 선정되기까지는 일선 교육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교사들의 노력과 배움 중심의 행복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섬세하지만 결코 무겁지 않은 실천중심의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해 온 것이 주효하였다. 또한 이러한 유치원의 교육활동과 교직원들을 신뢰와 믿음의 눈으로 지켜보며 함께 성장하고 있는 학부모와 지역민의 사랑이 밑거름이 되어주기도 하였다고 생각한다.

경상남도의 유아교육을 주도해 나가며 새로운 유치원문화를 조성하고 유아교육의 지평을 열어가고 있는 지금의 의령유치원이 있기까지에는 작은 것 하나까지 아이들의 눈으로 살피고 배려하는 교사들의 탁월한 능력과 헌신이 있어 왔다. 이 같은 교사들의 넘치는 열정은 유아를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 유아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초석을 다지는 경험 중심, 생활 중심, 유아 중심의 섬세하고 조금은 가벼운 교육과정의 설계로 이어졌다. '가벼운 교육과정으로 누리과정의 실천이 모호해지면 어찌하나' 등의 우려의 목



소리도 있었지만 털어 낸 교육과정만큼 교사들의 열정이 채워졌으며 이러한 교육과정의 실천은 유아가 행복해지고, 교사는 함께 배우고 보람을 느끼며, 학부모도 같이 성장하며 만족해하는 전국 50대 교육과정 우수 유치원이라는 영예로 돌아왔다. 의령유치원의 교사들은 유아의 무한 가능성과 창의력, 고운 심성을 이끌어 내는 데 중점을 두고 교육과정을 준비하였다.

유아기에는 인성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고 의령유치원의 모든 가족은 이에 상응하는 미완성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부족한 부분은 채우며 넘치는 것은 과감히 털어내는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도 현재진행형으로 수정하고 재구성하는 교육과정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의령유치원은 ‘함께 배우며 같이 성장하는 행복교육’의 실현을 위하여 ‘움트리(UM3)로 더(THE) 행복한 의령교육’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단순한 교육과정을 뛰어 넘어 전 교직원과 학부모, 지역민이 함께 만드는 교육과정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의령유치원의 움트리(UM3)인 ‘▲생각키움 ▲인성키움 ▲감성깨움’은 유

아들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키우고 더불어 살아가는 고운 심성과 오감을 일깨우는 교육과정이다.

‘지혜와 생각 나눔의 독서활동’과 ‘협업으로 배움 익히기’ 등을 통한 예술·체육 교육으로 치유된 마음을 키우고 ‘바깥놀이로 한 뼨 크기’를 실시해 감성 충만 바깥놀이로 더불어 살아가는 유아를 기르는 데 노력하며 가정과 함께하는 바른 품성, 공감 소통 활동을 전개하였다. 움트리(UM3)의 첫 번째 교육과정인 ‘생각키움’의 일환으로 독서 활동을 통하여 올바른 독서 습관을 형성하고자 독서 환경을 구성하였다. 이는 유아의 올바른 책사랑 태도를 길러 주었고 가정과 지역이 함께하는 그림책 읽어주기 활동도 전개하였다. 특히 선생님, 친구들과 함께 10분 동안 그림책 보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 그림책 보기’ 활동은 유아의 올바른 독서 습관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선생님, 어머니, 유아가 읽어주는 책사랑의 날과 교육공동체 4주체(유아, 선생님, 어머니, 지역민)의 그림책이끄미, 이야기 할머니가 들려주시는 옛 이야기 활동은 유아가 책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며 책 속에 숨어있는 아름답고 향기로운 삶을 간접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

이밖에도 책 속에서 즐거움을 찾는 독서골든벨(학기별 만5세 실시), 가정과 연계한 그림책은 내 친구(만3,4세 실시), 지역도서관을 활용한 그림책과 친해



- 1 아침그림책보기 활동
- 2 그림책은 내친구 활용
- 3 그림책이끄미 어머니
- 4 그림책이끄미 선생님
- 5 그림책이끄미 활동



교사는
가르치며 성장하고
유아는
스스로 배움의 갈증을
해소하는 기회 가져

지기(도서관과 MOU체결) 등을 함께 추진하여 가정, 지역사회와 연계한 행복한 책임기 문화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

움트리(UM3) 두 번째 교육과정인 ‘인성키움’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예술·체험활동으로 열린 소통의 공간을 마련하고, 협업을 통한 배움중심 활동으로 배움에서 소외된 아이가 한 명도 없는 수업 가꾸기를 하였다. 이를 통해 교사는 가르치며 성장하고 유아는 스스로 배움의 갈증을 해소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은 교사와 유아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유치원의 모든 교육활동 안에서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행되었다.

▲배움중심 수업 성찰로 배움 공유 ▲교육활동지원 체계 구축
▲가족과 지역민이 함께 즐기는 우리 동네 축제 ▲배움공동체 학부모독서동아리(행복 씨앗을 심기 위한 맘 카페)의 지역기관 방문 재능기부 형식의 인형극 공연 ▲지역의 문화 예술인의 유치원 프로그램 참여(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의 옛이야기) 등도 함께 추진하며 마을 공동체가 같이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이끌어가는 좋은 표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움트리(UM3) 세번째 교육과정인 '감성깨움'은 유아 주도적 놀이 활동 전개로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고 가정과 연계한 즐기는 바깥놀이 및 인성교육 활동으로써 오감놀이를 통하여 잠자고 있는 유아의 감성을 일깨워주고 몸과 마음이 건강한 유아의 성장을 목적으로 하였다. 만3세, 만4세, 만5세 유아들은 매일 1시간 이상의 바깥놀이 시간을 확보하여 생활주제 중심의 다양한 영역별 프로그램을 즐기며 행복하고 건강한 놀이문화를 완성하고 있다. 또한 바깥놀이 실시 전에 매일 아침 건강 체조, 운동장 걷기, 달리기, 연령별 줄넘기 놀이 등을 통해 운동을 생활화하였고 운동장, 놀이기구, 모래놀이, 물놀이, 전통놀이, 소리탐색 악기놀이, 자연탐구, 산책 등 다양한 바깥놀이 활동은 유아들이 건강한 심신의 발달을 위한 좋은 바탕이 되었다.

이와 함께 존중, 협력, 배려, 효, 나눔, 질서, 예의, 정직, 책임, 자기조절 덕목을 갖추고 실천할 수 있는 교수·학습계획안을 수립하고 유치원, 가정,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체험활동 제공 및 가족과 함께하는 토의, 협동놀이, 독서 활동 등의 실천으로 고운 심성 기르기에 힘썼다.



- 6 가정과 연계한 인성활동
- 7 어린이 안전교육
- 8 수업 나눔 평가
- 9 생활체육 활동수업
- 10 여름·채소 수확하기
- 11 다문화 체험 학습

의령유치원은 함께 배우며 같이 성장하는 행복교육의 배움 공동체로서 ‘움트리(UM3)로 더(THE) 행복한 의령유치원 교육’을 실천하기 위하여 유아, 교사, 학부모 및 지역사회 모두가 배움의 공동체가 되어 ‘놀이’와 ‘기본생활습관지도’에 몰입하고 있다.

유아 중심의 다양한 놀이를 통하여 나눔, 배려, 사랑을 실천하는 인성을 함양하며 툭툭 튀는 감성을 살려 창의력을 증진시키고 한 명의 아이도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는 배움에 대한 즐거움을 일깨워주어 유아 개개인의 꿈·끼를 발현시키고 있다. 결국 교육과정의 순수한 본질을 추구하는 행복교육을 실천함으로써 꿈과 끼를 살리고 마음결이 고운 창의적인 인재를 기르고자 의령유치원의 스토리, 의령유치원의 색깔, 의령유치원만의 테마가 있는 교육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의 문턱을 낮춰 교육공동체와 소통하다

'아이중심' 가좌초등학교



박진우
가좌초등학교 교장



1. 가좌교육을 위한 약속

'아이들을 중심에 두는 본질에 충실한 가좌 교육을 위하여'

하루 생활의 대부분을 보내는 학교가 아이들에게는 즐겁고 행복한 배움터이고, 교직원들에게는 즐겁고 신나게 가르칠 수 있는 곳이며, 학부모와 함께 참된 교육을 만들어가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아이들을 중심에 두는 가좌 교육활동을 실천하여 지역 속의 학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II. 달라서, 함께해서 더 좋은 학교생활을 위한 실천

교과서 위주의 지식 전달 교육에서 벗어나 실생활 중심, 체험중심 활동을 강화하여 삶과 연계된 교육으로 학생들이 미래사회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고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교과-창체 연계 프로그램 및 효율적인 체험 활동을 위해 블록타임제 및 체험-평가가 일체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01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 운영

가좌초등학교만의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다섯동이 역량 기준, 핵심 성취기준 중심의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지역 체험활동 시수를 확보하였고 ‘가좌 어 깨동무 체험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교 내·외의 체험자원을 5개의 영역으로 선정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였다.

영역	구분	대상	관련교과	체험장소 예시
문화 체험길	문화체험	3~4학년	국어,사회,창체	혁신도시, 전통시장, 박물관, 봉수대, 시청 등
인성 체험길	나라사랑	1~6학년	국어,도덕,사회,창체	가좌쑤길, 진주성, 국립박물관, 진양호 공원 등
건강 체험길	건강증진	1~6학년	체육,예술,창체	가좌쑤길, 가좌산 테마공원, 경상대학교 운동장 등
진로 체험길	진로탐색	5~6학년	국어,실과,예술,창체	경상대 학과 및 동아리 탐방, 진로관련 체험시설 등
창의·예술길	감성,생태	5~6학년	국어,실과,예술,창체	지역 문화예술 축제 체험, 학교내 생태환경 등

▲ 학년군별 꿈 계단 체험 프로그램표

02 평가와 연계한 체험활동 전개

주제별, 학년(급)별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를 배정하여 학기별 5회 이상 체험학습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운영하였다.

체험학습을 알차게 진행하기 위하여 백워드 설계형 평가를 도입하여 체험학습 계획 단계에서 평가문항을 함께 제작하고 체험학습 후 평가를 통해 교사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체험학습의 목적성을 갖고 임할 수 있게 되었다.

영역	체험주제	활동단계	시수	성취기준 분석 및 활동내용
문화 체험길	중앙시장 탐방	사전활동(P) (안전교육)	1	체험활동에 대한 안내 및 조사할 내용 정리(국어1436, 1차시)
		현장 체험활동(P)	4	시장사람들과 인터뷰하기(국어1411, 1차시) 시장에 있는 인공물 관찰하고 사진 찍기(미술4111, 1차시) 상점에 파는 물건들의 하루 판매량 조사(수학4501, 1차시) 우리 지역의 중심지 관찰하기(사회4031, 1차시)
		사후활동(R) (평가포함)	4	물건들의 하루 판매량 그림그래프 그리기(수학4502, 1차시, 수시평가) 인터뷰한 내용 요약하여 쓰기(국어1412, 1차시, 수행평가) 인공물 관찰하고 사진 찍어 온 것 보고 그리기(미술4111, 2차시)

▲ 체험활동 성취기준 분석 및 활동안내

III. 교육공동체와 소통으로 지역 속의 학교 만들기

자기의 의견을 바르게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집단 토의 과정을 통해 학교생활에 필요한 공동의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태도를 기르기 위하여 학생주도형 회의문화를 만들고 학부모 및 지역사회가 학교교육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01 학생·학부모·교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가좌 교육공동체 다모임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교육과정, 학생이 중심이 되고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줄 수 있는 다양한 교육활동의 운영을 위해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가좌 교육공동체 다모임’을 운영하였다. 이 의사소통시스템을 통해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였으며, 민주적인 협의 문화를 정착시켰다.

이렇게 운영하였습니다

- 교육공동체 안건 접수(안내장, 게시판)
- 학급 및 학년 다모임(자치 1시간)
- 학부모, 학생, 교직원 다모임 실시 (매월 1회, 08:20 ~ 09:00, 홍보관)
- 안건 협의 결과 방송조회, 게시판 안내
- 각종 요구사항 조율 후 반영



▲ 가좌공동체 전체 다모임

02 삶이 연결된 배움의 진로교육을 위하여<가좌공동체 전체 다모임>

삶이 연결되는 진로교육을 위하여 학부모 연수를 확대하고, 지역사회 기관, 기부자 등을 활용하여 삶과 연계된 체험중심 진로교육을 실시하였다.

프로그램		운영내용
학부모	역량강화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커피향 바리스타 감성교육을 통해 늘품누리주간 체험부스운영 학부모 독서동아리 활동, 학부모 문학기행 동아리 등
	교육기부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화구연, NIE교육, 독서캠프 도우미 활동 현장 체험학습 도우미, 각종 모니터링 활동, 교육 재능 기부
지역 사회	협약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산노인요양원과 월 1회 봉사활동 협약 체결(10년 간 실시) 경상대와 산·학협력지원 협약체결
	교육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상대학교생 자원봉사 기부(3월~12월, 매주), 벽화그리기 기부 등 교육지원청, 기부자 77건 매칭(24명)
	시설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상대학교 교육시설 활용 10건 등 지역 유관기관 활용 혁신도시 공공기관 체험학습(5개 기관), 문화시설 활용

IV. 수업방법 혁신을 위한 다섯등이 교육과정 운영

01 학생 참여형 수업을 위한 배움중심 특화 수업 전개

배움중심수업을 전개하기 위해 학생들이 배움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수업, 학생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수업, 학생들의 삶과 연계된 체험활동이 가능한 수업 등 학생 주도의 5가지 배움중심 특화 수업을 선정하고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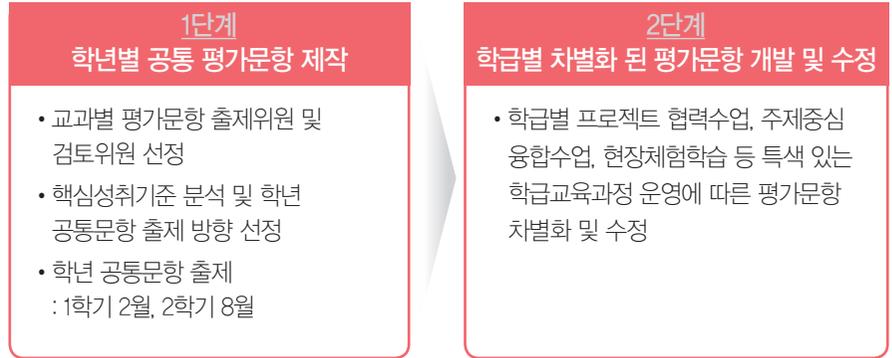


▲ 토의토론 배움중심특화수업

팀티칭 학습	주제중심 융합학습	ACE 학습	DT 학습	프로젝트 협력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체능, 과학, 수학, 동아리활동 등 전문가와의 협력수업으로 학생 참여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핵심성취기준 기반 재구성을 통한 주제 중심 융합학습으로 학습부담 경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A(활동) + C(협동) + E(표현)로 수업 중에 다양한 인성 역량 함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D(토의·토론활동) + T(생각들)으로 의사소통 능력, 공동체 역량과 지식 정보처리능력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력하여 과제를 해결하며 학급특색 발휘, 배려, 창의성 신장
연간 10회 이상	연간 2주제 이상	연간 10시간 이상	연간 20시간 이상	연간 2회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담임+담임 담임+전담 담임+교육실습생 담임+교육기부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제를 중심으로 교과 및 창체를 융합하여 재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로 체육, 음악, 미술교과에 적용 활동+인성 결합수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년군별 DT방법 선정 국어, 사회, 도덕, 슬생, 과학교과에 주로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급별 1주제 프로젝트 운영 알뜰장터프로젝트

02 학급별 차별화된 평가문항 개발 시스템 구축

학생 성장 중심의 평가방법 개선을 위해 삶과 배움, 평가가 연결 짓기가 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였으며 즉각적인 피드백을 통해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촉진하였고 학급별 교육과정 재구성에 따른 수업 중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학급별로 문항을 차별화하였다.



V. THE 꿈키움 프로젝트로 아이들의 진로를 밝히다.

본교는 인근에 도보로 20분 거리에 경상대학교, 시내버스로 20분 내의 거리에 혁신도시 등 많은 진로 인프라를 활용하여 교육과정 속에서 다양한 진로 탐색 체험활동을 하였다. 체계적인 진로교육을 위하여 학년위계에 맞는 단계형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어 협력과 소통의 체험활동으로 학교에서 행복한 꿈 탐색 기회를 제공하였다.

01 재능 키움 T(Talent)HE 교육과정 운영

첫 번째 Step1 자기 이해의 단계에서는 전문상담교사와 함께 하는 집단 상담, 또래 상담교실을 운영하였고 교육재능기부를 활용해 연극을 통한 꿈 찾기 등을 하였으며 Step2에서는 학교 밖 지역사회 체험자원을 활용한 다섯둥이 체험의 날, 진주 기공 펜싱부 재능기부를 활용한 무료 펜싱교실을 운영하였다. Step3에서는 직업 체험을 주제로 학부모 및 지역인사 재능 기부강사와 팀티칭 창업동아리, 학생자율동아리를 개설·운영하였다.

02 희망 나눔 TH(Hope)E 교육과정 운영

나의 꿈 찾기 활동을 위하여 학년별 프로젝트 학습을 운영하였는데 1~2학년군은

환경프로젝트 요소 추출 및 환경프로젝트 수행하였으며, 3~4학년군은 탐구프로젝트 교육과정 재구성 및 조사, 관찰, 실험을 통한 탐구활동 전개하였으며, 5~6학년군은 진로프로젝트 진로설계를 위한 심리검사 및 꿈 달력 만들기 등 진로체험활동을 실시한 후 프로젝트 발표 및 전시, 공유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03 **늘봄 키움 THE(Evolution) 교육과정 운영 - 창업동아리 페스티벌(꿈 설계) 운영**

꿈 설계를 위하여 창업동아리 페스티벌을 3일간 운영하였는데, 1일차 드림캐처에서는 학급별 꿈 발표회, 그리고 학부모, 지역인사 재능기부를 통하여 직업인과의 만남, 전문가와의 진로상담을 하였고, 2일차에는 학기 중에 실시한 학년별 프로젝트 결과를 학부모 앞에서 학년별로 발표하였다.

3일차의 동아리 페스티벌은 학생중심 창업동아리 페스티벌 및 돛자리장터 운영, 그리고 한 학기 동안 동아리에서 만든 생산물품을 판매하였고 배운 내용을 다른 학생과 나눌 수 있는 체험부스를 운영하였다.





VI. 더 나은 가좌교육을 위하여

학교는 훌륭하고 멋진 수업을 창조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게 배울 권리를 보장하고 화려한 실적을 만들기보다는 불필요한 것을 없애고 우리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기다려주고 격려하며 교육의 본질을 달성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곳이다.

아프리카의 속담에 ‘한 아이가 올바르게 커 갈 수 있도록 온 마을이 나선다.’ 라는 말이 있다. 이제 우리 교육도 교육공동체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아이의 올바른 성장과 교육을 위해서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과 지역사회가 함께 해 나가야 할 것이다.

park2234@hanmail.net

전교생 57명이 쓴 시를 엮은 시집

『별을 쏘다 악양들빛 하늘에』



주옥경
악양중학교 교사



지리산 남부 능선 끝자락이 병풍처럼 둘러있고 시루봉에서 시작된 물이 평사리 넓은 들을 가로지르는 아름다운 곳에 자리 잡은 우리 학교는 전교생이 57명인 작은 학교이다. 학생들이 자신의 재능과 꿈을 활짝 펼쳐나가길 바라는 채창훈 교장선생님의 교육 철학을 바탕으로 다양한 교육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난 2월에는 본교의 특색과제로 전교생이 창작한 시를 엮어서 시집 ‘별을 쏘다 악양들빛 하늘에’를 네 번째로 발간하게 되었다.

하동 악양은 작가 박경리가 쓴 작품 ‘토지’의 배경이 되는 곳이며 많은 문인이 작품을 배출하는 문학의 고장이다. 우리 학교는 학생들에게 이런 아름다운 고장의 문화와 자연을 경험하게 하고 학생 자신이 작가가 되어 시를 써 보게 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살피고 정서를 순화하며 자신의 마을을 사랑하게 되는 것을 목적으로 시집 발간을 특색과제로 삼아 왔다.



맑은 영혼으로 푹푹 뭉친 너희들의 시는
하동 섬진강과 지리산,
그리고 악양의 들판이 준 선물이라고 생각한단다

시집 발간은 전임 국어교사인 최하나 선생님의 학생에 대한 사랑과 열정으로 시작되었다. 고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옮겨와 처음 근무하면서 천사 같은 학생들에게 감성과 표현력을 키워주고 싶어서 시 쓰기 교육을 시작하였고 시집까지 발간하게 된 것이다. 최 선생님의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첫 시집 후기에 잘 드러나 있다. “내가 너희를 만난 건 축복인 것 같단다. 맑은 영혼으로 푹푹 뭉친 너희들의 시는 하동 섬진강과 지리산, 그리고 악양의 들판이 준 선물이라고 생각한단다.”

시 쓰기는 아이들에게 주변을 자세히 관찰하게 만든다. 관찰하는 시선은 때론 깊고, 관찰을 통해 드러낸 아이들의 마음은 따뜻하고 정겨우며 날카롭기도 하다.

학교 갔다가 집에 돌아오면 / 항상 흠이 묻어 있는 할머니의 신발 / 그 신발만 보면
마음이 아프다. // 오늘은 또 어떤 힘든 일을 하고 오셨을까? / 할머니에게 가 내 걱
정되는 맘을 숨기고 / 괜스레 할머니의 어깨를 주무른다.

『할머니의 신발 - 손유찬』

감나무에 살포시 앉아 / 어느 놈이 속 짝 찼을까 / 작은 손으로 통통 두드려 보
네. // 요리조리 한입씩 베어 물고는 / 이야~, 달아 달아 밝은 달아 ~ / 노래가 절
로 나네. // 맛에 흠뻑 취해 / 정신 놓고 춤추다 쿡! / 예구머니, 감에 검은 점박
이 생겼네.

『까치밥 - 정연정』

나는 나의 의지로 움직이는가? / 주변 사람이 웃으면 따라 웃고 / 주변 사람이 떠들
면 같이 떠들고 / 주변 사람이 하면 따라 하는 / 나는 나의 의지로 움직이는가? / 분
위기에 휩쓸려 / 주변에 휩쓸려 / '나'를 포기하고 / 나가 아닌 우리의 의지로 움직
이지는 않는가?

『누가 우리를 움직이는가 - 도진혁』

할머니를 생각하는 손자의 애뜻한 마음, 맛난 감을 먹는 까치의 행복을 느끼는 마음,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보려는 마음 등 일상생활에서 말로 표현하지 않지만 관심 어린
눈길로 보고 듣고 느꼈던 것들을 시를 통해 드러낸다. 이렇

듯 시 쓰기를 통해 우리 아이들은 주변을 살피
는 힘을 키우고, 출렁이는 자신의 마음도 어
루만지며 키워나간다.

봄비가 촉촉이 내리는 날이나 햇살이 눈부신 가
을날에 종종 아이들은 “오늘은 시 쓰기 좋은 날이
예요.”라며 적극적으로 시 쓰기를 즐기기도 했다. 악



양천이 옆으로 흐르는 취간림으로 데리고 가 숲 속에서 시 쓰기 수업을 하기도 했고, 교실을 벗어난 운동장에서 자세히 보아야 아름다운 자연을 느끼며 자유롭게 시를 쓰게도 했다. 나아가 우리 아이들은 지역의 백일장이나 전국적인 문예 대회에 참가하여 시 쓰기의 또 다른 즐거움과 성취감을 얻기도 하였다. 올해도 그동안의 시 쓰기 교육활동에 힘입어 각종 백일장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경남중등학생종합학예 발표 하동군대회 백일장 시 부문에서 장원을 하였고 도 대회에서도 차상을 수상하였다. 그 외 이병주 하동문학제 백일장에서 입선하는 등 운문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백일장 분야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었다. 아름다운 악양의 풍광과 거짓 없는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이 빚어낸 결과였다.

수업 시간 외에도 독서 기록을 겸하는 공책에 틈나는 대로 시를 쓰게 하였다. 2학기 학예제 때는 전교생이 자신이 좋아하는 시 한 편을 골라 직접 만든 시화로 전시회를 열었다. 시화전에 걸린 시들을 보고 그 학생의 개성이 그대로 묻어나는 선생님들의 감상평을 듣고 시란 자신의 삶에서 우러나오는 것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시 쓰기는 소통의 장을 만들어 준다. 시를 쓰면서 학생들은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진다. 또 완성된 시집에 담긴 여러 친구들의 시를 보면서 일상생활에서 볼 수 없었던 친구의 새로운 면을 알게 될 것이고 선생님들 또한 시를 통해 아이들의 갈등과 소망을 읽게 되었다. 가정에서 학부모님이 시를 읽는다면 자녀의 한 조각 마음을 이해하거나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이다.

악양중학교로 온 지 일 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전임 교사가 일구어 놓은 교육활동을 이어 가면서 아이들의 정겹고 때 묻지 않은 마음들을 만나서 행복했다.





이번 시집은 표지까지 학생들에게 맡겨 보았다. 악양들빛 하늘에 쏘아올린 밝은 별인 듯 미술부 학생들이 산뜻하게 디자인을 하였다. 새로 발간된 시집을 들고 한 졸업생은 시인이 된 듯 뿌듯하고 졸업을 해서도 이 시집들을 보게 되면 중학교 생활이 그리워질 것 같다며 최하나 선생님께도 꼭 시집을 한 권 보내달라며 당부를 잊지 않았다. 그것은 시집 발간이 앞으로도 이어가야 할 소중한 과제임을 말해 주는 것 같았다. 평소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활동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교장 선생님께서도 네 번째 시집의 권두시를 직접 써 주셨다.

어둠이 햇살에게 자리를 비켜주니 아이는 지혜와 상상력의 씨앗을 뿌리고 언어를 다듬는다. / 선생님은 아이의 그림자가 되어 돌부리를 치운다. / 내일도, 내일의 내일도, 전교생의 아이들은 처음 왔던 걸음보다 / 더 가벼이, 그들의 시와 함께 자신만의 길을 계속 걸어 나가리라.

「신생(新生)을 부르는 악양의 선물 II」

우리 아이들이 시와 늘 함께하며 아름답게 성장해 나가길 바라는 교장 선생님의 바람이 잘 담겨져 있다. 시인 이성복은 시는 아픈 사실들을 이야기함으로써 그 사실들이 더 이상 아프지 않게 한다고 했다. 우리 아이들이 삶의 아픔뿐만 아니라 기쁨, 슬픔, 그리움 등 자신의 이야기를 시로 진솔하게 표현함으로써 진정한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게 되길 바란다.

096 우리 동아리 최고

함께 걸어 좋은 길

최희정 | 창원토월고등학교 교사

김해울하고 방송부 YBS

강형훈 | 김해울하고등학교 교사

110 교직실무

학교자율감사

노영민 | 경상남도교육청 주무관

116 여유와 멋

3월은 봄도 아니다

박근생 | 경상남도교육청 장학관

잘 놀아야 잘 크다

박종국 | 중리초등학교 교사

삼

최용규 | 미리벌초등학교 교사

차 한 잔의 여유와 멋

조은희 | 김해합성초등학교 교사

2017, Spring story
Education
Gyeongnam

교사 진로 실천 동아리

'함께 걸어 좋은 길'



최희정
창원토월고등학교 교사

1. 들어가며

어느 날 갑자기 우리교육에 진로교사가 생겼다. 단위학교 진로 교육, 체계적인 학년별 진학시스템 구축, 개인 맞춤형 진로상담, 학부모진로교육, 지역사회 진로 네트워크 구축 등 우리에게 던져진 과제는 굵직굵직하고 거창했다. 그런데 처음 주어진 과제가 우리 역량으로 미처 현장에서 소화되기도 전에 자기주도 학습법과 꿈과 끼를 살려주는 자유학기제의 정착 임무마저 사뭇히 내려앉았다. 이러한 임무 보따리를 짊어지고 각자 도생의 자세로 각 개전투가 지난 6년간 단위학교에서 벌어졌다. 거대한 경쟁과 서열 교육의 틈바구니에서 계란으로 바위치기 활동이 전개된 것이다.

진로교육이라고 연수 받은 활동과 이론은 ‘무기력하고 꿈이 없는 학생을 일으켜 세워주는 희망진로교육’으로 실천되기에는 역부족이었고, 공부 상처로 철저히 피해를 입은 아이들을 위한 개별상담도 절용성 같은 진학교육의 거대 시스템 앞에선 제 역할을 찾기가 마음처럼 쉽지가 않았다. 학교 시스템도 문제였지만 진로교사들을 가장 고뇌하게 만든 것은 주어진 진로교사의 역할보다는 그 역할을 수행할 ‘진로교육의 공감대와 가치’에 대한 방향성 설정이었다. 일은 주어졌고 그 일을 비슷하게 진행하는데도 가치와 방향성이 다르니 당연히 결과 도출이 일그러지기도 했다. 그리고 또 하나, 명백하게 드러난 것은 단위학교 진로교사의 역량 차이에 따라 진로교육의 허실로 드러난 것이다. 진로교육이라는 독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한쪽에서는 독이 허물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경남 진로교육의 허실을 바로 잡아 보기위해 진로교사들이 자신의 진로교육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성장해가기 위해 전체 진로교사 협의회 차원에서 동아리를 결성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함께 걸어 좋은 길’을 출발하였다.

거대한 경쟁과 서열
교육의 틈바구니에서
계란으로 바위치기
활동이 전개된 것이다

II. ‘함께 걸어 좋은 길’ 동아리의 핵심 연결고리

01 함께 걸어 좋은 길 밴드를 열다

우리가 설정한 첫 번째 과제는 폐쇄적인 단위학교 진로교육의 벽을 허물기 위해 활동을 공유하는 ‘진로교사 밴드’를 조성하는 일이었다. 자신의 진로활동과 진로수업을 공개된 공간에 내놓음으로써 가까운 곳에서 주는 자극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이런 공유 활동을 통해 진로교육의 질적 상향성을 유도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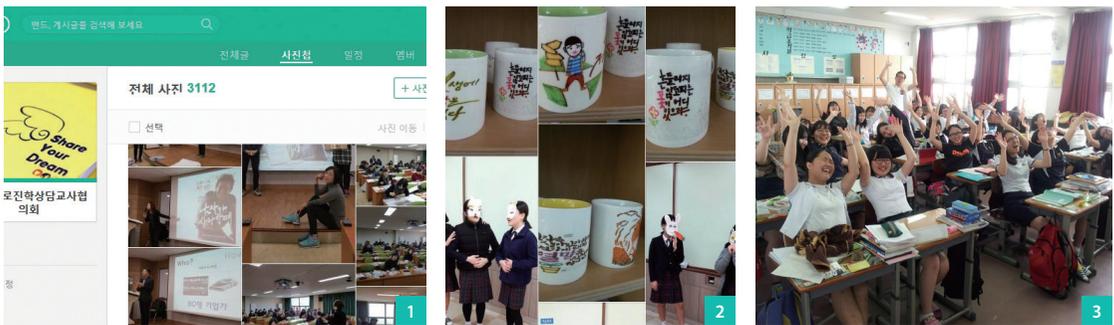
처음 밴드 운영은 눈팅으로 시작하였고, 피나르기를 금지하는 과정에서 조금의 불만도 있었지만 우리는 진로교사가 할 수 있는 활동들을 나눔으로 공유하였다.

우리가 임명되고 존재하는 초심의 목적은 이상이나 허상이 아닌 단위학교 현장에서 충분히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실제임을 증명하는 과정을 밴드는 보여주었다. 개별적인 RVD 진로교육, 진로의 마음이 담긴 진학지도, 개별적인 심층 상담, 아카데미를 통한 학부모 진로교육, 학부모와 함께하는 지역 공동체 활동 등 진로공동체에서부터 지역사회 네트워크까지 현장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동료들의 모습을 밴드를 통해 공유함으로써 진로교사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다져갔다.

그리고 밴드는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서서히 그 역할을 수행해갔다. 이후 밴드에는 진로교사들이 자발적으로 더 모이기 시작하였고, 밴드를 통한 진로활동 공유와 동료들의 격려가 이어졌다. 가장 의미 있었던 것은 단위학교에서 진로수업도 공개되기 시작한 점이다.

또한 진로교사 역량 강화 연수의 기획과정과 준비과정을 공개하여 연수의 가치와 목적에 대한 방향성을 교사들에게 충분히 안내하였다. 일방적 공문으로 전달되던 수많은 활동들에 대한 설명과 진행방법도 같이 공유하기 시작하면서 밴드는 서서히 회원들에게 위로가 되는 공간으로 성장해갔다. 우리에게 울타리가 생긴 것이다.

- 1 함께 걸어 좋은 길 밴드
- 2 진로수업 활동공유
- 3 진로교사 행복이벤트 진행



02 실전 진로캠프를 통한 진로교사 역량강화

진로교육에 있어서 캠프의 힘은 대단하다. 시나브로 스며드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캠프는 학생들의 진로성숙도를 한 단계 훌쩍 성장시키는 힘이 있고, 무엇보다 진로교사들의 자존감을 성장시키는 매력이 있다. 실전을 배우면 실전의 능력이 향상되고, 실전이 향상되면 교단에서 우리는 행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취지에서 우리는 캠프를 오픈하여 많은 선생님들이 캠프 멘토 역량을 키워갈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다.

우리가 함께 진행한 실전 캠프는 자기주도 희망공부캠프, 진학촉진캠프, 비전 캠프, 자소서 모듬멘토캠프, 모의면접캠프, 탈북자와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진로캠프, 야간 자율학습을 위한 학습코칭 캠프 등이 있다. 공교육 교사들이라 평일에는 진로캠프를 열기가 어려워서 우리들의 캠프는 주로 토요일과 일요일에 진행되었고, 밴드를 통해서 멘토들을 자발적으로 모집하였다. 캠프진행을 위해서 밴드 채팅방을 통해서 실전 캠프의 사전, 사후 워크숍을 활발히 진행하였다. 진로교사들이 진행하는 캠프 프로그램의 태생이 현장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었지만 아이들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진로교사들의 마음으로 인해 캠프는 따뜻하고 호응도가 매우 높았다.

우리는 실전 캠프를 운영하는 동안, 진로교육의 초보라는 겸손의 마음과 학생들에게 희망의 꽃이 되고 싶다는 마음에서 노란 옷을 함께 입었다. 이상하게 노란 옷을 입으면 10년 이상 젊게 보이는 이상한 효과가 있어서 연식이 오래된 진로교사의 나이를 살짝 감추어주기도 하였고, 성적 경쟁과 서열교육에 매몰된 진학교육에 대한 저항의 심정으로 입은 노란 옷은 참 제격이었다.

03 친목지회에서 협업하는 연구지회로 성장

타인의 진로활동이 밴드와 캠프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공유됨에 따라 가슴에 조그마한 열정의 불씨가 자극되었다. 이러한 열정의 불씨는 다소 지극한 연령에도 불구하고 연구 협업의 필요성으로 나타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6개 지회는 친목지회에서 연구협업 지회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음식점에서 친목을 도모하던 지회모임이었지만, 서서히 단위학교의 진로실에서 진로수업을 공유하고, 진로주제를 토의하고, 지역협업을 논의하는 모임으로 변모되었다.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낸 것은 우리들 가슴속에 있는 좋은 진로교사로의 꿈이었다.

4 자기주도 희망공부 캠프

5 진로교사 실전 멘토로



4



5

04 다양한 진로교육 연수 기획과 운영

해보면 알겠지만 진로교육은 절대 만만치 않다. 왜냐하면 행복이라는 화두와 희망, 꿈, 용기, 가치, 즐거움, 힐링, 미래라는 진로교육의 키워드는 하위 철학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의 목마름을 반영하여 연수를 기획, 진행하였다. 우리가 진행한 연수는 뇌교육을 통한 행복한 힐링 진로수업 직무 연수, 예술심리 상담치료 프로그램 직무연수, 대학교수와 함께한 100개 학과 직무연수, 실전캠프 직무연수, 대학과의 만남연수 등이 있다.

그 중 가장 공을 많이 들인 연수는 ‘대학교수와 함께 한 100개 학과 직무연수’였는데 2년에 걸쳐 이 연수를 진행하여 97개 학과의 교수들을 직접 만나 학과에 대한 생생한 정보를 배울 수 있었다. 금요일 밤과 주말을 이용해 연수는 진행되었고, 대부분의 연수는 토요일과 방학에 진행되었기에 우리들의 휴일은 진로교육으로 고스란히 대체되었다. 연수에 대한 충분한 설명은 밴드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경남 전역에서 진로교사들이 모여들었다. 우리들의 연수는 열린 마음을 가진 진로교사의 연수답게 언제나 웃음이 넘쳐났기에 연수는 주말 힐링이 되었고 우리는 시나브로 성장하고 있었다.

- 6 멘토로서 성장한 지회 모습
- 7 협업을 위한 지회 확산
- 8 실전공유를 위한 협업 지회로



- 9 대학교수와 함께한 100개 학과 직무연수
- 10 예술심리 프로그램 직무연수



05 대학교수와 진로교사의 만남- 생생한 현장의 정보, 100개 학과 책자 발간

우리는 진로교사들이 직접 만든 책자로 아이들에게 생생한 정보를 전해주고 싶었다. 아이들이 실제로 궁금해하는 정보들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책으로 담아내고 싶었다. 수많은 대학에서 만든 학과 책자의 홍보성을 내려놓고 아이들의 입장에서 학과 책자를 만들고 싶었는데 그 꿈이 실제로 이루어져서 자연공학계열과 인문사회예체능계열의 학과 책자가 만들어졌다. 책을 만드는 시간은 진로교사로서 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지만 10명의 선생님들이 힘을 모았다. 정말 힘든 작업이었지만 그 책으로 학과에 대한 공부를 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 흐뭇하기 그지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학과 책자를 학과 카드로도 만들어볼 생각이다.

III. 나가며

폭풍 같은 날들이었다.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그저 좋았다던 드라마 ‘도깨비’에서처럼 우리의 날들도 그랬다. 그러나 진로교사로 ‘함께 걸어 좋은 길’ 동아리 운영을 마감하고 조용히 앉아보니 ‘정말 모든 날이 좋았구나.’ 싶다. 도깨비의 심정이 이해가 간다.

진행하는 과정이 힘들 때마다 동아리를 함께했던 부회장이 했던 말이 있다. ‘지금 힘들면 잘하고 있는 거라……’ 그 말을 철떡 같이 믿었고 지나보니 성장이 있었다. ‘함께 걸어 좋은 길’ 동아리의 정신의 축은 중용 23장이었다. 작은 일도 무시하지 말고 정성을 다해야 하고,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씩 배워간다면 세상은 바뀐다는 그 정신이었다. 그 정신이 있었기에 더욱 좋았다. 함께 걸어서 참 다행이었다.

감성 추억을 통해 미래를 엮어가는 YBS 스토리

김해율하고 방송부(YBS)



강형훈
김해율하고등학교 교사

2006년 3월 2일! 교사라는 타이틀을 등에 지고, 교단에서 아이들과 함께 해온 시간이 벌써 10여년! 지난 10년여의 시간동안 교사라는 자부심이 가슴 한 켠에 자리 잡은 이면에, 말로 설명하기 힘든 허전함도 더불어 가슴 한 구석에 자리하고 있었다. 그렇게 교직생활에 무디어져 가는 감정이 조금씩 깊어질 즈음 김해율하고의 방송부라는 새로운 업무는 앞으로의 교직생활에 한 줌의 빛이 되기에 충분했다.

YULHA BRO



방송부와 함께 한 지나온 발자취는 교직의 중요한 시점에 추억을 만들어 주었고, 방송부 아이들과의 깊은 만남속에서 새로운 도전이라는 신선함을 방송부 동아리를 통해 얻을 수 있었다. 더불어 학생들과의 소중한 추억은 김해울하고 방송부(이하 김해울하고 방송부는 YBS로 약칭)의 미래를 엿보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발자취가 미래를 여는 계기가 된 우리 학교 YBS방송부 기자단의 멋진 모습을 챗터별로 소개하여 본다.

ADCASTING SYSTEM

#1 감성방송 청취자들에게 드리는 YBS의 편지

To. 김해울하고 감성방송 청취자분들

안녕하세요? 김해 울하고 방송부 YBS에서 편지를 하나 쓰려 합니다!

저희 YBS에서는 지난 1년 동안 8회라는 특별방송을 통해 김해울하고 학생들만의 감성을 충전시켜주기 위한 감.성.방.송!이라는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엮어 학생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매일 똑같은 하루와 많은 양의 공부에 힘들어하고 있을 우리 또래의 학생들을 생각하며 '어떻게 해야 더 새롭고 더 공감되는 감성방송이 될 수 있을까?'하고 행복한 고민에 빠져들곤 합니다. 사연을 받아 학부모님과 우리의 소중한 벗이 되는 학생들,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 수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선생님들의 마음을 전해 드리는 것이 주된 저희 방송부의 일이지요. 그러한 활동중에서도 학생들의 일상에 작지만 달콤한 재미를 주는 것 역시 저희의 일이라고 생각해서 새로운 도전을 정말 많이 하였답니다.

'책 읽어주는 방송', '수능 응원 방송', '크리스마스 와 할로윈 등 기념일 특집 방송'. 이러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방송을 할 때마다 감성방송 청취자들이 더 유익하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울하 로또', '실시간 전화 퀴즈' 등의 이벤트들도 다양하게 준비했었지요.

청취자들이 눈치를 챘을지는 모르겠지만 평소에 하던 생방송뿐만 아니라 녹음방송까지 시도해 성공을 이끌어냈죠! 저희가 감성방송을 기획하고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방송을 통해 학생들의 귀에 들리기까지 많은 노력이 필요하였지만, 방송을 듣고 있을 학생과 다양한 추억을 남기는 선생님의 모습을 그려 보면 없던 힘도 저절로 생기는 보람된 일이었습니다.

야간 자율학습은 물론 학원까지 다니느라 나날이 지쳐가며, 잠에서 완전히 깨지 못한 채로 아침 무렵엔 쏟아지는 잠을 참고 우리 학생들이 이끌어 가는 YBS 방송에 귀를 기울여주는 모습들이 얼마나 예쁘고 고마웠는 지 모르겠어요. 그 덕에 더 좋은 감성방송을 들려주려 더욱 열심히 생활하기도 했던 것이구요. 그 고마움과 기쁨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더 의미가 있는 우리들만의 감성방송을 만들어 갈 거예요. 그리고 모두의 따뜻한 응원은 방송부를 이끌어가는 학생들에게 더 좋은 감성방송을 들려줄 수 있는 큰 발판이 된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은 알고서 늘 응원해준답니다. 그 기대와 응원에 힘입어 더 좋은 감성방송을 기획하고 학교방송으로 김해울하고의 감성을 책임지는 방송부 YBS! 그런 저희의 모습 하나 하나를 아껴주시고 앞으로도 소중한 관심으로 살펴봐주시길 바래요! 아자 아자!

From.
김해울하고 방송부 YBS와 늘 함께 하길 바라며...



#2 도전! 티볼영상을 통해 김해울하고에 날개 달다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우리 울하고의 생활을 YBS 방송국은 학생들의 소중한 활동을 추억하는 과정을 담고자 했다. 그런 와중에 문득 2015년에 전국대회에서 3등을 차지한 울하고 학생 동아리인 여자 티볼부인 빅보스킹이 강하게 드러났다. 학생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빅보스킹. 우리는 올해 전국대회 1등에 도전하는 빅보스킹 학교 동아리의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티볼부의 성장을 보여주기로 하였다. 이번에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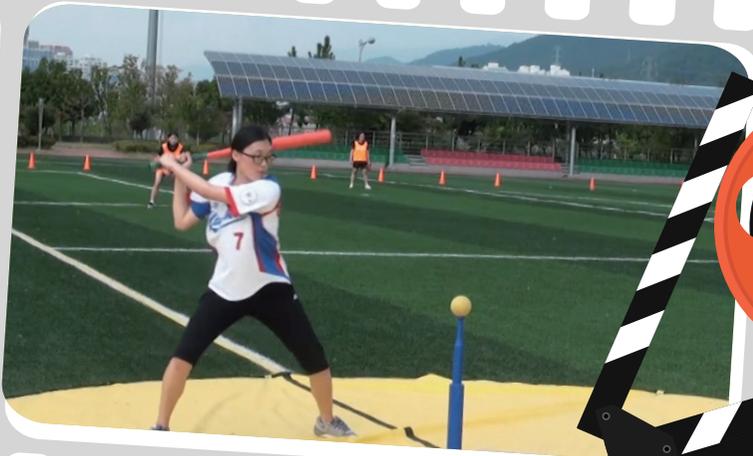


오늘도 목표를 향해

빅보스킹은 학년 구분 없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기초적인 연습부터 하나씩 배워나가며 초심을 잃지 않고 연습에 꾸준히 참여하였다. 그 모습들을 촬영하면서 우리는 지금까지의 활동을 생각하며 처음의 마음가짐으로 임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되었다.

앞으로 한 발짝

드디어 도단위의 대회가 열리는 날! 경기가 뜻대로 잘 되지 않을 때도 많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서로 도와주고 격려하는 모습은 우리의 원동력이 되었다. 그렇게 당당히 도단위 체육활동에서 우승하여 전국 대회에 한 걸음 다가갔다. 실패를 해도 믿어주고 지지해주는 팀워크가 있었기에 성공한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우리는 빅보스킹을 통해 학생 활동의 영상을 제작하다 우연히 전국 학교 스포츠클럽 UCC 공모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참여하기로 결정 했다. 우리 또한 새로운 도전을 통해 한 걸음을 나아가려고 노력하던 시간이었다.



미완성

그렇게 학교에서의 소중한 추억을 영상으로 엮어가는 것이 응원이 되기도 하였지만 빅보스킹 티볼 동아리는 전국대회에서 아쉽게도 2등을 하였다. 하지만 전국 2등이라는 순위 또한 대단한 것이며 위로 올라갈 곳이 남았다는 새로운 동력이 되어 빅보스킹은 끊임없이 도전할 의지를 갖게 되었다. 꿈은 버리지 않으면 언젠가 꼭 이룰 수 있다고 믿는다. 단, 그 때가 지금이 아닐 뿐. 이제 다시 각자의 꿈속으로 빠져들 시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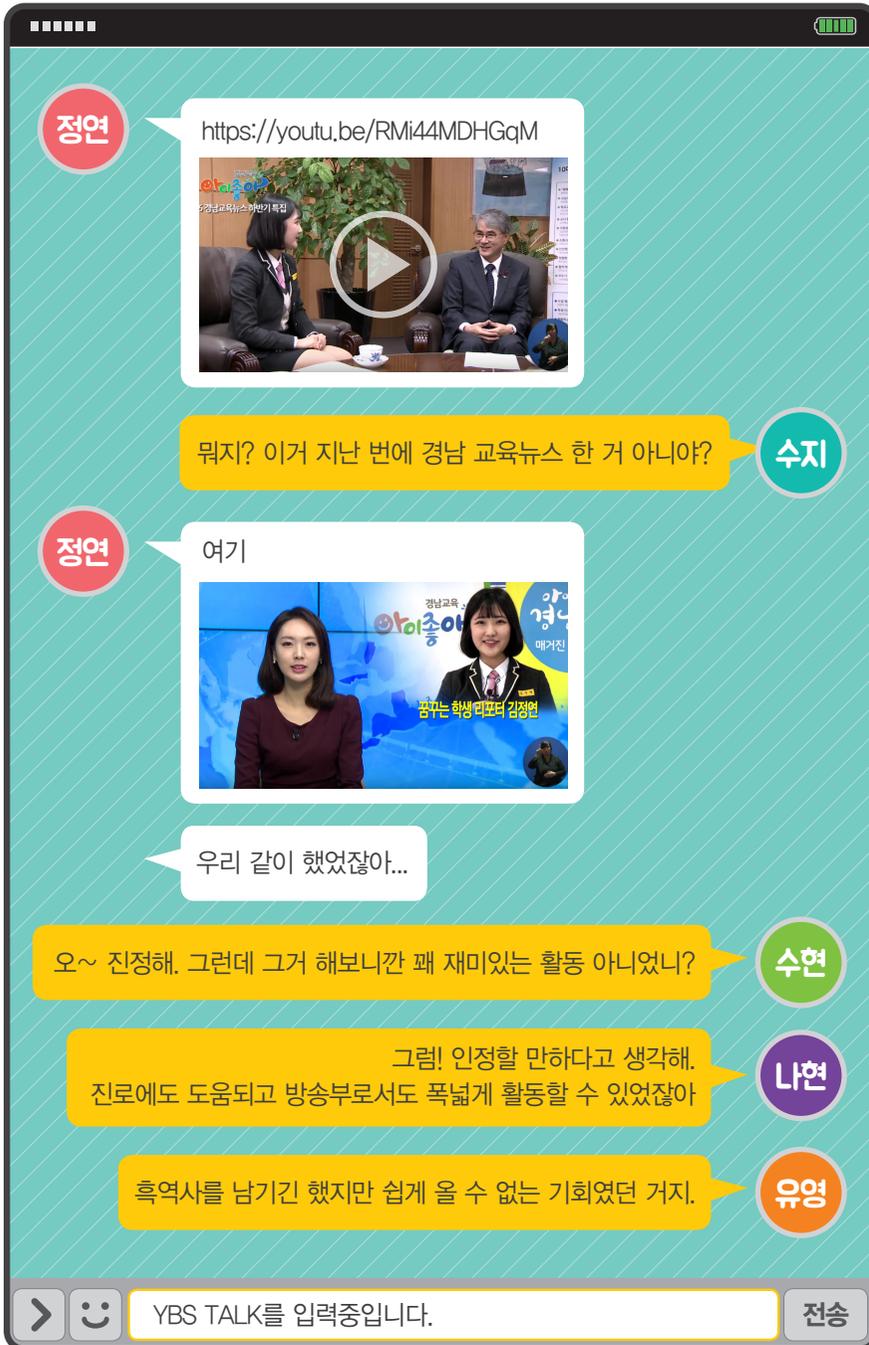
꿈꾸는 순간

이러한 우리의 생각은 김해올하고 학생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의지가 되었다. 그런 목적으로 YBS가 제작한 영상은 공모전에도 참가하여 우수상을 받게 되는 소중함을 얻었다. 이 상은 몇 번이나 공모전에 참가하여 실패했었던 우리에게 아주 큰 선물이자 의미가 있는 소중함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단지 수상을 했다는 단순 의미보다는 이 영상이 교내에 수차례 방영되면서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위해 도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도록 한 것에 더욱 자긍심을 심어 주었다. 그리고 또 도전한다. 우리의 이야기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에...



#3 경남교육뉴스! 내 동료가 되라! -김해울하고 방송부 YBS-

입소문을 통한 김해울하고 방송부 YBS가 경남지역뉴스에 도전하고 동아리원들의 마음이 담긴 대화창입니다. 그리고 활동 후 변화된 모습들입니다.



YBS 늘 열려있는 아이들처럼 새로운 것을 배우고, 쓰고, 알리기 위해 시작했다는 경남 교육뉴스의 취지에 맞게 우리 YBS에서도 일일 리포터로서 하반기 특집을 준비해 보았었지요. 저희 개개인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였을 뿐 아니라 주어진 역할에만 만족하는 수동적인 모습에서 벗어나 새로운 것을 찾아보고 도전하면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인 마인드를 갖게 된 것 같아요.

정연 일일리포터라는 역할을 맡으면서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기쁨을 느낀 것 같아요. 친구들 모두 함께하진 못하여 아쉬운 면도 있지만, 쉽게 오지 않는 기회였기에 모두 한 발 더 발전한 것 같아요.

.....

김해올하고 방송부 YBS! 우리 지역 뿐 아니라 도내의 모든 학교에서 빛을 발하지 못하였지만 묵묵히 제 역할에 충실했던 소중한 서로가 있어 가능했던 일. 그것은 살아있는 힘이 되었고,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중요한 삶의 원동력이었다.

도전을 통해 일취월장한 그동안의 모습들에 박수를 보내며, 김해올하고 방송부를 비롯한 도내 모든 학교의 방송부원들의 노고에 마지막 인사를 드립니다.
 “수고했어! 또 파이팅 하며 내일을 위해 아자 아자, 다시 한 번 힘내어 보자구요”

rkdkfk4000@naver.com



학교자율감사



노영민
경상남도교육청 주무관

I. 들어가며

01 학교자율감사의 정의

학교자율감사는 2016년 처음 시행한 제도로 학교에서 각종 비리를 예방하고 업무를 개선할 목적으로 자체적으로 감사반을 편성하여 감사 시기, 방법 등을 계획한 후 학교 업무 전반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감사를 실행하고 그 결과에 대한 처분, 개선 등을 이행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감사행정 제도이다.

02 학교자율감사 도입 배경과 목적

학교자율감사는 규정만을 앞세워 개인의 잘못을 따지는 전통적인 감사방식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감사행정 제도이다. 또한 지적과 처벌 위주의 감사가 아닌 문제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지도와 예방에 중점을 두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제도이다. 학교에 대한 종합감사 주기가 3년에서 5년으로 길어짐에 따라 학교에 감사 기능을 부여하여 업무 비리나 오류를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감사 결과를 능동적으로 수용하여 교직원의 자율적인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자 도입하게 되었다.

학교자율감사 실시는 사전 비리 예방, 사후 비리 통제, 환류 등 감사 기능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단위학교의 자율통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한다. 또 비리의 사전 차단을 통한 청렴문화 확산, 종합감사 면제로 교직원 업무경감 효과, 학교와 학부모의 공교육 만족도 등을 제고 다양한 목적에서 추진되었다.



학교종합감사,
학교자율감사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

II. 학교종합감사, 학교자율감사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

01 학교자율감사 추진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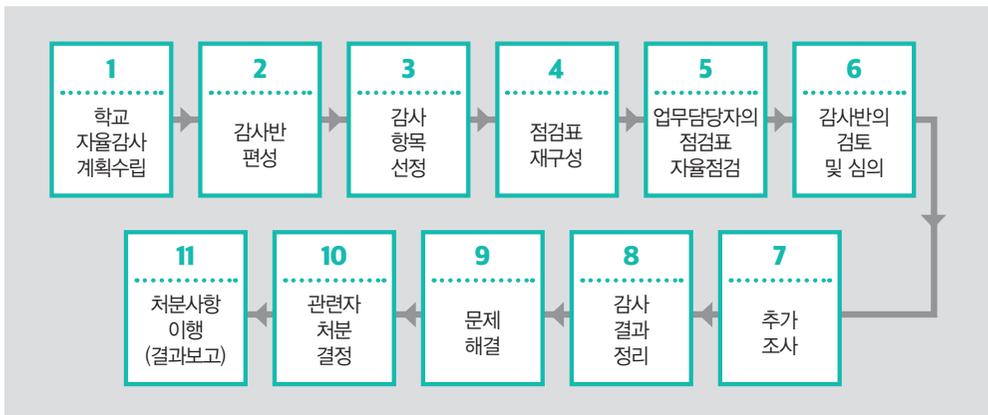
가. 감사반의 편성과 운영

교감을 감사반장으로 하여 부장교사, 수석교사 등 학교 구성원이 내부감사관이 되고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인근 학교 교장·교감·행정실장 등이 외부 감사관이 되어 활동하게 되는데, 교감은 학교자율감사의 취지나 방법에 대한 연수 등 자율감사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또한 감사반원 위촉 시 감사 중 알게 된 기밀 사항과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서약서를 받고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학교자율감사의 특성상 감사자가 피 감사자가 될 경우가 많으므로 최대한 감사의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감사반을 편성하되, 감사의 전문성 및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해 외부 감사자를 반드시 위촉하여야 한다. 단, 출제 검토와 같이 정보 유출의 우려가 있는 사안의 경우에는 외부 감사자를 배제하고 편성할 수 있다.

나. 감사의 대상과 영역

2016년에는 종합감사 대상 중 학교장 청렴도 우수학교 11개교를 지정하여 학교교육계획, 주요사업(정책, 시책), 인사·복무, 학생생활지도 등 교무학사 영역과, 학교운영위원회, 재산·물품·시설 관리 등 예산회계 영역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30개 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다. 학교자율감사 실시 프로세스





라. 감사 처분 원칙과 종류

학교에서는 감사 지적 사례를 공개하여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지적된 오류에 대한 시정과 개선을 병행하여 추진하되, 신분상 조치는 범위를 최소화 하고 과실의 책임 소재는 명확히 하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학교자율감사의 처분은 오래된 관행을 개선하여 합리적인 방향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시정·교육 등의 행정상 조치와 주의·경고 등 신분상 조치, 회수·변상 등의 재정상 조치를 동반한다.

마. 감사 결과 보고와 사후 처리

학교에서는 감사 보고서 검토 결과에 대한 자체 협의회를 실시하고 감사 중 중요한 위법 및 비위 사항 발견 시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도교육청에 감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감사 과정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차기 년도 학교교육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감사 결과 보고서의 처분에 따라 학교장이 관련자에게 처분(주의문, 경고문 발부) 후 자율감사 결과를 근무성적 평정 및 성과상여금 평가 시 반영한다. 만약 처분 대상자가 다른 기관으로 이동한 경우 전출 기관으로 감사 결과를 통보하며,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통보된 감사결과에 따라 해당자에게 처분을 내리게 된다. 감사 자료, 지적 사항 및 처분 관계 서류는 편철하여 5년간 보관하고 감사 결과는 처분 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되, 우수 사례에 관한 보도 및 자체 홍보 직원회의나 내부 소통 장치를 활용하여 감사 결과를 공유한다.

학교자율감사는
규정만을 앞세워
개인의 잘못을
따지는 전통적인
감사방식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감사행정제도이다



지적과 처벌 위주의
감사보다 지도와 예방에
중점을 둔 감사로...

02 2016. 학교자율감사 시범운영 추진 실적

가. 추진 경과

- 1) 2016. 학교자율감사 시범운영 계획 수립 : 2016. 8. 2. (화)
- 2) 2016. 학교자율감사 학교 지정 통보 : 2016. 8. 23. (화)
- 2016. 학교장 청렴도 평가 결과 우수학교 11개교 : 초(7), 중(2), 고(2)
- 3) 학교자율감사 업무담당자 연수 : 2016. 9. 12. (월)
- 4) 학교자율감사 실시 : 2016. 11. 29. (화) ~ 2017. 1. 25. (수)
- 5) 학교자율감사 시범운영 결과 평가 : 2017. 2. 1. (수)
- 6) 학교자율감사 평가 보고회 : 2017. 2. 13. (월)

나. 지적 사항

2016학년도에 총 11개교를 대상으로 학교자율감사를 실시한 결과, 기간제 교사 호봉 획정 오류, 학교 평가 업무 소홀, 학생생활기록부 출결 사항 입력 오류 및 결석계 관리 소홀 등의 학사 관련 사항 56건과 학교 발전 기금회계 사무인계인수 미실시 학교회계 세입세출예산 명시 이월 소홀 등 재정관련 사항 35건을 지적한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처분의 형태로 보면 주의·경고 등 신분상 조치 36건, 128명, 시정·개선·교육 등 행정상 조치 55건 443명, 회수·추가지급 등 재정상조치 13건, 14,719,240 원이었다.

III. 맺으며

지난해 7월 우리도교육청 개방형 감사관으로 부임한 조재규 감사관은 규정만을 앞세워 주로 개인의 잘못을 따지는 전통적인 감사 방식에서 탈피하여 문제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구조적인 틀을 바꾸는 시스템 감사로 전환하는 것에 중점을 둔 감사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조직 운영상 문제점을 분석해 시정하고 공직기강을 바로 잡기 위해 앞으로는 지적과 처벌 위주의 감사보다 지도와 예방에 중점을 둔 감사, 대안을 제시하는 감사 제도를 운영하되 특히, 운동부 운영이나 방과후학교 운영 등 청렴도가 취약한 분야부터 체계적으로 접근할 것임을 밝혔다. 우리도교육청에서는 학교자율감사와 사이버감사를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다. 단위학교의 책무성을 강조하는 학교자율감사와 더불어 각종 정보자원의 적극적인 개방·소통·협력을 위한 사이버감사도 올해 4월에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의 청렴도 평가는 내·외부 청렴도 측정과 정책에 대한 고객 평가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한 기관의 부패 정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척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외부의 참여를 통해 교육의 비리를 척결하려는 노력과 학교자율감사를 통한 내부의 자발적인 청렴 의지가 더욱 강조된다면 경남교육의 비전인 '배움이 즐거운 학교, 함께 가꾸는 경남 교육'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byul237@korea.kr

우수 사례에 관한
보도 및 자체
홍보 직원회의나
내부 소통 장치를
활용하여 감사
결과를 공유한다

3월은 봄도 아니다

3월은 봄도 아니다.
더욱 겨울은 아니다.
그래서 가슴이 아리고 애가 탄다.
봄을 향하는 그리움에 피가 끓고
겨울을 떠나는 설움에 살이 떨린다.

3월은 봄도 아니다.
4월만큼의 열정도 모자라고
속으로만 들썩일 뿐
2월만큼의 미련도 털어내지 못하고
겉모양만 어설피다.

3월은 봄도 아니다.
내 애잔한 그리움과 내 서글픈 미련함으로
당당히 마주서지 못한 부끄러움으로
수줍게 고개 내민 화장기 없는 민낯이다.

짙은 봄비에 매맞고



박근생
경상남도교육청 장학관

곳은 꽃샘추위에 멍들고
따신 봄햇살에 위로받으나
영겨주춤 4월을 마주하는
3월은 봄도 아니다.

그리운 님에게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게 맨살로 서있는 허수아비
3월은 봄도 아니다.

차가운 겨울 바람에 소박맞고
화사한 봄꽃에 질시받고
따스한 햇살마저 미움주는
3월은 봄도 아니다.

그래도 3월은

잘 놀아야 잘 크다

잘 노는 아이는 생기가 유다르다. 잘 노는 아이가 더 활기차고 공부도 재밌게 한다. 놀이를 통해서 표출되는 에너지도 충분하다. 논다고 해서 무작정 시간을 소비하는 건 아니다. 놀이는 돈으로 사는 휴식과도 다르다.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놀이다. 잘 노는 아이가 건강하다. 그래서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아이가 논다는 행위는 건강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돌배기 아이는 엄마아빠와 놀면서 세상살이를 시작하고, 마침내 배꾸마당으로 나가 사회성을 배운다. 놀이는 아이에게 경이로움의 대상이다. 아이는 잘 놀아야 잘 크다. 놀이에 흠뻑 빠지는 아이는 일마다 즐겁다. 하여 여느 아이보다 어울림이 좋고, 향상성이 크며, 성취동기를 높게 갖는다. 아이의 마음 상태는 바짝 마른 스펀지다. 때문에 그 무엇이든 다 빨아들이고도 남을 흡습성을 가졌다. 그게 아이의 가소성이다. 그것은 반드시 놀이라는 매개체로 가능하다. 놀이가 건강한 성인으로 자라게 한다는 사실은 동물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성체는 놀이의 과정을 거친다. 사자와 호랑이, 표범과 같은 맹수들의 새끼들은 하나같이 장난기가 심하다. 광활한 초원에서 자기네 들끼리 엮어지고 메치면서 놀다가 그것도 심심해지면 부모의 꼬리를 물고 늘어지거나 등에 올라타며 신경을 건드린다. 놀아달라는 아양이다.



박종국
중리초등학교 교사

그럴 때 어미 맹수들은 선뜻 놀아주지 않는다. 그 대신에 살아 움직이는 장난감을 가져다준다. 아직 다 자라지 않은 사냥감을 잡아다가 새끼들 앞에 놓아둔다. 그러면 새끼들은 어미가 물어다 준 산 장난감과 노느라 시간이 가는 줄 모른다. 그렇지만 번번이 새끼들은 산 사냥감을 놓친다. 그때 가만히 지켜보던 어미는 재빨리 달려가 사냥감을 다시 잡아다가 새끼들



앞에 놓아준다. 놀이를 통해서 사냥훈련을 익히려는 의도다. 이는 하늘을 지배하는 맹금류들도 마찬가지다. 어렸을 때 장난기가 심했던 맹수들은 다 자라면 더 이상 놀이를 하지 않는다. 약육강식의 사회에서는 먹고 사는 일이 전부다. 그에 비해 인간은 다르다. 동물이 그저 배를 채우는 데 만족하지만, 인간은 보이지 않은 가치를 끊임없이 사냥을 해야 한다. 그 가치는 바로 인간만이 갖는 독특한 취미와 문화다. 취미와 문화는 모두 놀이를 바탕으로 생겨났다. 그 모든 일을 놀이에 포함시켜 놓고, 노는 듯이 일하는 문화를 만들어 냈다.

인간 세상에서 놀이는 어떤가. 우선 재밌어야 하고 새로워야 한다. 그래야 눈길을 끈다. 또한 놀이에는 사회성도 함유되어야 한다. 그래야 올바른 놀이가 된다. 어렸을 때부터 성숙된 놀이 문화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얼굴 표정이 해

어렸을 때 장난기가 심했던 맹수들은 다 자라면 더 이상 놀이를 하지 않는다.

밝다. 그런 아이일수록 매사 긍정적이고 성취동기가 높다. 때문에 요즘 기업에서 신입사원을 선발할 때도 잘 노는 사람, 친화력이 높은 사람을 선호한다. 그만큼 잘 노는 사람은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태도를 보인다. 왜냐? 잘 노는 사람은 일을 하든 경영을 하든 사람의 마음을 잘 아는 까닭에 사람을 이끄는 능력이 뛰어나다.

더더구나 조직을 이끄는 지도자라면 자기 일만 바둑바둑 쟁길 게 아니라 노는 능력을 갖춰야한다. 부하 직원에게 깐깐하게 일머리를 따져드는 상관보다는 조금의 여유를 갖고 노는 시간을 배려하는 게 또한 지도자로서 필요한 능력이다. 그는 놀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이라면 상대방을 배려할 뿐만 아니라 혼자 놀기보다 같이 놀아야 더 재밌고, 결속력이 더 강하게 다져진다는 사실을 안다.

요즘 아이들은 놀 줄 모른다. 아니, 재밌게 놀 여유가 없다. 학교 수업을 마치면 운동장 맨홀을 뚫아보기는커녕 학원과외로 내몰린다. 놀이는 공부하는 데 하등의 도움이 안 된다는 부모, 놀이를 잊어버린 부모의 편협한 생각들이 아이의 성장을 짓눌러버렸다. 세상을 재밌게 살려면 노는 걸 우선해야 한다.

삶

하늘처럼
 세상을 끌어안은 채로
 땅처럼
 세상을 품은 채로

바람처럼
 세상을 스치우며
 강물처럼
 세상을 가로질러

구름처럼
 흘러흘러
 안개처럼
 피어올라

논밭처럼
 삶을 일구며
 산처럼
 듚직하게 살리라



최용규
 미리벌초등학교 교사





차 한잔의 여유와 멋



조은희
김해합성초 교사
eunhun1@hanmail.net



발행인 황선준
편집인 정영권
편집주간 오인태

편집위원회

위원장 양연규 (석동중학교 교장)
부위원장 백금선 (김해합성초등학교 교감)
위원 구형량 (창원중앙고등학교 교사)
 김영환 (산양중학교 교사)
 박선정 (월촌초등학교 교사)
 배종훈 (진양고등학교 교사)
 백재성 (마산가포고등학교 교사)
 서화영 (김해삼문고등학교 교사)
 신현석 (창녕중학교 교사)
 이지만 (웅동초등학교 교사)
 조지원 (창동초등학교 교사)

인쇄일 2017. 4. 5
발행일 2017. 4. 7
발행처 경남 창원시 의창구 사림로 11번길 20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
www.gerii.go.kr



※ 본지에 실린 내용은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의 공식적인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표지사진 인물



- 왼쪽부터
 이새하(육지중학교 교사)
 차민성(신기초등학교 교사)
 허연서(삼정초등학교 교사)
 허지훈(삼천포제일중학교 교사)
 황연서(성주초등학교 교사)

미래 경남교육을 선도해 갈 새내기 선생님들과 함께 촬영하는 내내 가슴이 뜨거워짐을 느꼈습니다.

젊음과 열정, 그리고 당찬 패기로 학생들이 진정으로 오고 싶어 하는 학교, 자신의 꿈을 끝없이 펼치며 마음의 안식처로 삼고 싶어 하는 학교를 만들어갈 미래를 조심스럽게 기대해 봅니다.

선생님의 따뜻한 진심이 학생들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선생님을 바라보는 초롱초롱한 아이들의 눈망울에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멋진 교사가 되리라 믿습니다.<송>



봄의 향연 수묵담채 55×38cm



황미주

창원상남중학교 교사

- 경상남도 미술대전 초대작가

- 공무원미술대전 금상(11)

2j2jsj@hanmail.net

왜, 주황색 하늘은 없는 걸까요?

맑은 날은 파란색,
구름 낀 하늘은 회색
해질 녘은 붉은 색,
기분이 좋을 때는 핑크 색
슬플 때는 검은 색
날씨에 따라 기분에 따라 보는 사람에 따라
제각각 달라지는 하늘 색..
하지만 왜 우리는 아이들에게
하늘은 무조건 파란색이라고 가르치는 걸까요?
교육은 정답을 주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아이의 눈으로
경남교육을 생각합니다

